

기본연구과제 2003-11

# 충남지역 향교의 운영실태와 현대적 활용방안

임 선 빈

# 발 간 사

향교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이다. 서울에 국립대학에 해당하는 성균관이 있듯이 지방의 각 고을에는 오늘날의 중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향교가 있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고을마다 하나의 향교를 설립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조선말기 36개의 고을로 구성되어 있었던 충남에는 오늘날 36개의 향교가 남아 있다.

현재의 시·군은 일제시대인 1914년에 종래의 크고 작은 고을을 통·폐합하면서 성립되었다. 공주시는 조선시대 공주목이라는 하나의 큰 고을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으므로 현재 하나의 향교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부여군은 조선시대의 부여·석성·임천·홍산이라는 네 개의 작은 고을이 통합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네 개의 향교가 남아 있다.

향교건물은 크게 공자와 선현들을 모셔놓고 제사를 드리는 공간인 대성전과 동·서무, 선비들이 모여 공부를 하던 공간인 명륜당과 기숙사인 동·서재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시대 향교는 지방의 유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 수시로 드나드는 장소였으므로 대부분 고을의 중심지로부터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향교는 시내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외곽에 있는 경우에도 면소재지에 가까이 있다. 따라서 향교건물은 그 어느 전통건축보다도 활용가치가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은 향교시설을 향교 본래의 기능을 고려하면서 현대에 맞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서 이번에 이루어진 충남지역 향교의 운영실태와 현대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틈틈히 자료를 수집하여 본 연구를 수행한 임선빈 충청학연구부장에게 감사한다.

2003년 12월

충남발전연구원장

오 제 직

## ◆ 목 차 ◆

###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 II. 조선시대 향교의 기능과 성격

1. 향교의 설립과정과 연혁
2. 향교의 교육기능과 인적구성
3. 향교의 의례기능과 사회교화
4. 향교의 재정기반
5. 근대이후 향교의 변화와 쇠퇴

### III. 충남지역 향교의 실태와 과제

1. 공간 현황
  - 1) 향교의 입지 및 배치형태
  - 2) 대성전과 명륜당
2. 운영 현황
  - 1) 재정 및 인력 현황
  - 2) 사업실적 현황
3. 운영상의 과제

#### Ⅳ. 타 지역 향교의 수범사례 분석

##### 1. 회덕향교의 시범향교 운영

- 1) 문화관광부의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 2) 회덕향교의 시범향교 운영실태

##### 2. 대구향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Ⅴ. 충남지역 향교의 현대적 활용방안

##### 1. 향교 석전제의 현대화

- 1) 석전의 연원과 의의
- 2) 석전행사의 일반인 참여 유도

##### 2. 유교관련행사의 다양화

- 1) 관·계례(성년식) 행사 개발
- 2) 전통혼례 및 수연행사 개발
- 3) 백일장 행사 개발

##### 3. 사회교육의 내실화

##### 4. 향교자원의 관광자원화

- 1) 개별관광자원으로 활용
- 2) 연계관광자원으로 활용

#### Ⅵ. 정책제언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유교문화는 단지 건축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곳에서 살고 생활했던 사람과 그들의 정신이 중요하다. 사회가 급격히 다변화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개발할 유교문화도 바로 유교적 인물의 사상, 저술을 비롯하여 교육, 경제, 생활문화, 유적, 유물 등이 망라되는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유교문화재는 생활공간 속에 있으면서도 문화골동화되어 점차 생활과 괴리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향교는 지역주민의 자긍심이나 생활속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되어야만 할 필요성이 크다.

향교의 문화적 기능을 지역사회에서 활용하기 위한 방향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기존에 투자된 문화재의 복원과 정비 시설물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되, 체험과 유교문화 이해 프로그램(소프트)을 확대하여야 한다.

유교문화자원들이 정적이며, 교육적이고, 지루함이 느껴져서 재 방문율이 적은 문화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건축물, 특정 인물, 혹은 전통 의례나 한학 중심의 문화개념이 강조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므로, 실제 전통사회를 이끌었던 지성인들의 삶과 생활문화를 자원으로 재생하여 활용하면 이러한 평가는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전통유교문화의 중심지인 향교를 본래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어떻게 현대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교육적 기능을 변화시켜 활성화하며, 체험학습의 자원으로 활용할 것인

가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것들은 다양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도록 전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유교문화와 관련된 향교의 기능을 살려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둔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함께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기능의 발굴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내용을 담게 될 것이다.

유교문화와 관련된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먼저 유형의 향교건물만이 아니라, 과거 향교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었을 때의 향교 본래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향교의 공간 활용과 함께 향교의 전통적인 기능을 현대적으로 재정리하여 프로그램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헌정리와 함께 현지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향교의 실태 조사는 재산현황과 이용자 실태 및 운영중인 프로그램의 실태를 조사하여 계승발전 시킬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내고, 특성화 프로그램을 모형화하여 확산시키려는 전략을 구상한다. 동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만한 지역단위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시함으로써 적절히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 3. 선행연구 검토

향교에 관한 역사학계의 연구, 고건축분야에서 접근한 건축사 관련 연구 등은 다수 있으나, 충남지역의 향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른 지역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충남지역 향교의 연혁, 건축현황과 구조, 관련자료 등에 관한 실태 파악은 충청남도에서 1996년에 조사하여 1999년에 발간한 『충남의 향교』가 있다.

향교 기능의 현대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는 2002년에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 간행한 『우리 민족문화창달을 위한 향교와 서원기능의 현대적 활용방안』(연구책임자 이흥재·장미진, 본문 145쪽)이라는 정책과제 보고서가 있어서 참고가 되지만, 이를 충남에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보고서는 전국의 향교와 서원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조사내용이 지나치게 피상적이며(운영현황은 주로 설문조사에 의존), 부분적인 오류가 보이고 있다(예컨대 터만 남아 있는 서원을 건물이 현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활용방안 제시). 또한 현실감과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특히 충남의 지역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 II. 조선시대 향교의 기능과 성격

### 1. 향교의 설립과정과 연혁

향교(鄕校)는 고려와 조선시기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이다. 현재 충남에는 1901년에 오천군이 충청수영을 중심으로 신설되면서 창설된 오천향교에 이르기까지 모두 36개의 향교가 존재하고 있다.

국도(國都)를 제외한 각 지방에 관학이 설치된 것은 고려조에 이르러서이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1127년(인종 5)에 인종이 여러 주(州)에 학교를 세우도록 조서를 내렸고 각 군현에 학교가 설립된 여러 사례들이 나타남을 감안하여 고려 인종조를 향교의 성립기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충남지역의 공주에는 늦어도 충렬왕 27년(1301) 이전에 향교가 설치되어 있었음을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1)</sup>

조선시기에 이르면 향교의 전국적인 확산이 이루어진다. 조선왕조가 개창되면서 태조는 즉위교서에서 외방향교에 생도를 증액하고 강학에 힘쓰게 하여 인재를 양육할 것을 지시하고 있고, 태종은 수령칠사(守令七事)에 수명학교(修明學校)를 넣어 지방교육에 관심을 기울였다. 조선초에 향교보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늦어도 세종조에 이르면 ‘일읍일교(一邑一校)’의 원칙에 의해 고을마다 향교가 성립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충남지역의 경우에도 조선초기에 이전에 있었던 향교의 증건은 물론 군현제 개편에 따라 각 군현에서 향교가 창건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세종조에 충남지역은 35개의 고을로 이루어져 있었으니<sup>2)</sup>,

---

1) 『東文選』 卷 65, 「公州東亭記」

이 시기에 충남에는 이미 오천향교를 제외한 35개의 향교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향교의 설립은 일읍일교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었으므로 이후에도 고을의 치폐(置廢)와 관련하여 향교의 치폐가 행해지기도 하였다.

〈표 1〉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충남의 향교 위치  
(관아를 기준으로)

	1리	2리	3리	5리	6리	10리	불명	계
동	전의현 · 정산현 · 태안군 · 청양현 · 남포현 · 예산현 (6)	은진현 · 면천군 · 아산군 · 진산군 (4)	해미현 · 당진현 (2)	임천군 (1)	천안군 (1)		보령현 (1)	15
서	직산현 · 부여현 · 연기현 · 서산군 · 온양군 (5)	목천현 · 한산군 (2)	공주목 (1)	덕산현 · 금산군 (2)				10
남						서천군 (1)		1
북	연산현 · 석성현 · 결성현 (3)	이산현 · 비인현 · 신창현 (3)	홍주목 · 홍산현 · 대흥현 (3)					9
계	14	9	6	3	1	1	1	35

15세기에 건립된 향교는 후대와 같이 정형화된 모습은 아니었다. 조선 초기 향교의 건물은 대개 초가집이었고, 향교의 관리와 수리는 고을의 수령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태안향교 : ‘초석도 없는 단지 수칸의 초가’). 원래 향교의 위치는 『일통지』와 『오례의』에 의하면 동방

2) 35고을은 충청도에 속했던 33고을(천안군 · 목천현 · 전의현 · 연기현 · 직산현 · 은수현 · 신창현 · 아산현 · 공주목 · 임천군 · 한산군 · 서천군 · 남포현 · 비인현 · 정산현 · 홍산현 · 은진현 · 연산현 · 석성현 · 부여현 · 니산현 · 홍주목 · 태안군 · 서산군 · 면천현 · 해미현 · 당진현 · 덕산현 · 예산현 · 청양현 · 보령현 · 결성현 · 대흥현)과 전라도에 속했던 2고을(진산군 · 금산군)이다.

이 천지만물이 생동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읍의 동쪽에 세워지는 것이 상례였으나, 이와 같은 향교의 위치가 반드시 지켜진 것도 아니었다.

조선초기에는 향교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의 확보와 파견도 중시되었다. 충남의 경우에는 주목에 해당하던 공주·홍주의 2고을에는 종6품의 교수가 파견되었고, 그 외의 33개 군현에는 종9품의 훈도가 파견되고 있었다.<sup>3)</sup> 조선초기에는 성전의 위판과 향교 건물의 관리도 보다 철저해지고 있으며, 향교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서책의 확보와 관리에도 주력하였다.

16세기에 이르면 향교의 교육기능은 15세기에 비해 약화되고 있다. 16세기에는 서서히 향교의 교육기능보다 성묘 제향기능이 중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조정에서는 쇠퇴한 향교 교육기능의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책이 논의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향교제독관(鄕校提督官)의 신설이었다. 16세기 말의 임란은 향교를 더욱 훼손시켰다. 임란중에 상당수의 향교가 불타거나 훼손되어 이후 많은 향교들이 중건되었다. 1608년(선조 36)에 이르면 외방(外方)의 향교가 거의 모두 복원될 수 있었는데,<sup>4)</sup> 충남의 경우 한산향교 서천향교 임천향교 등이 이 시기에 중건되었다. 또한 임란후 향교의 중건과정에서 이건을 청하는 사례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조정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건을 억제시키고 있었다.<sup>5)</sup> 이 시기에 충남의 향교 가운데에는 서천향교와 임천향교가 이건되고 있다. 임란후 폐쇄한 향교의 건물은 중수되었으나 향교의 교육기능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17세기에 들어서면 명백히 서원이 향교의 교육기능을 대체해 나갔다. 이제 서원을 조정에서도 인정하고 정책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이제 향교는 평민의 피역처가 되어 갔으며, 향교의 교생들은 학업은 연마하지 않고 향교의 자리에만 땀을 흘려 향교의 이건을 피하는 풍조가

3) 『경국대전』 이전 외관직조.

4) 『선조실록』 162, 선조 36년 5월 기미조.

5) 『선조실록』 134, 선조 34년 2월 기묘조.

만연하고 있다.<sup>6)</sup> 효종조에 일시 향교기능의 강화가 시도되기는 하지만<sup>7)</sup>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17세기 후반기인 현종조에는 이제 일향의 공론조차 분열되어 향교 유생안의 할명(割名)이 나타나고 있다.<sup>8)</sup>

이후에는 국가에서도 향교의 교육적 기능을 포기한 채 제향기능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 향교의 위판을 조사해서 『대전속록』의 규정에 맞게 정리를 시도하고, 형식을 강조하고 제물을 중시하고 있다. 향교의 운영은 재임이 주도하였고, 수령이 석전을 행하지 않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19세기 후반기에 대원군은 서원을 정리하면서 향교의 교육기능을 회복하고자 시도하였지만, 근대화라는 시대의 흐름은 이제 더 이상 종전과 같은 향교의 모습을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 2. 조선시대 향교의 교육기능과 인적구성

향교는 지방에 설립되었던 유일한 관학 교육기관이었다. 적국 향교에는 학문의 도량으로서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강학처로 명륜당과 학생기숙사로 동·서재를 갖추었고 그밖에 향교에 따라서 사마재, 양사재, 양몽재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교육기관인 조선시대의 향교에는 학생으로서의 교생(校生)과 이를 가르치는 교관(敎官), 그리고 향교의 직임을 맡고 있던 교임(校任)이 있었다.

### 1) 교관(敎官)

---

6) 『인조실록』 23, 인조 8년 9월 기묘조.

7) 『효종실록』 12, 효종 5년 4월 기축조.

8) 『현종실록』 3, 현종 원년 11월 경신조.

교관은 조선초기에 수차의 정비과정을 거쳐 『경국대전』에 부·목·도호부에는 종6품인 교수가 군·현에는 종9품인 훈도가 파견되도록 정리되었다.<sup>9)</sup> 『경국대전』에 의하면 모두 329명의 교수 훈도가 파견되었는데 충청남도에는 교수가 2명(공주·홍주) 훈도가 33명 파견되었다. 이들은 향교의 운영을 주관하고 교생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관은 조선전기부터 적임자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신분상으로나 학덕상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 군역을 면하려는 방편으로 교관직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학도들은 향교에 나아가기를 꺼렸고, 이로 인해 향교의 교육은 실효를 거둘수 없었다. 이에 선조는 제독관(提督官)을 파견하여 재차 향교교육을 장려코자 했다.

향교 제독관제는 1586년(선조 19)에 명나라제도를 모방하여 신설되었는데, 전국의 모든 향교에 제독관이 파견된 것이 아니고 계수관이 있는 향교에만 파견되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방향교의 교육을 독려한 것이다.<sup>10)</sup> 충남의 경우 공주목과 홍주목이 제독관이 설치되었던 고을인데, 당시 공주에는 조현이 제독관으로 왔었다.<sup>11)</sup> 이 제독관제도는 임란이후에도 다시 실시되었으니, 1600년(선조 33)에 공주제독관 설치를 청하여 윤허를 받고 있으며, 홍주의 경우에도 광해군 원년의 제독관으로 신정의를 확인할 수 있다.<sup>12)</sup> 이러한 제독관 제도는 인조조에도 논의되었고,<sup>13)</sup> 효종조에도 다시 설치가 시도되었으나,<sup>14)</sup> 법전의 규정으로 제도화되지는 못하였다.<sup>15)</sup>

향교의 교관 및 제독관 제도가 조선후기 언제까지 지속되었는가는 명확하지 않으나, 1744년(영조 20)에 편찬된 『속대전』에서는 『경국대

9) 『경국대전』 이전 외관직조.

10) 『선조수정실록』 20, 선조 19년 정월 병신조.

11) 『선조수정실록』 20, 선조 19년 10월 임술조.

12) 『광해군일기』 23, 광해군 원년 12월 갑인조.

13) 『인조실록』 8, 인조 3년 정월 경술조.

14) 『효종실록』 7, 효종 2년 7월 계묘조.

15) 제독관의 명칭은 법전류에는 보이지 않고, 『실록』 『태학지』 『증보문헌비고』 등에만 나타나고 있다.

전』에 명기되었던 외관직의 교수 훈도가 모두 감원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관료적 조직으로 유교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서 유능한 학도들은 강학능력을 상실한 향교를 멀리하고 서원(書院)·서당(書堂)·정사(精舍) 등 사학기관을 찾게 되었다. 향교는 이제 문묘의 향사를 하는 관학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는데 급급하였고, 지방양민들이 군역을 피역하는 장소로 전락하였다. 조선말기에 이르러 향교의 강학기능을 회복하고자 지방관은 따로 양사재(養士齋)·흥학재(興學齋)·육영재(育英齋) 등을 향교 부속으로 건립하기도 하였고, 1886년에는 향교의 재정으로 관학원을 설립하도록 지시하여 3인의 훈장을 두고 강학에 임하도록 하였으나, 그 성과 및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 2) 교임(校任)

15세기 후반에 이르러 양반들의 향교교육 외면에 따라 교육도 쇠퇴하게 되었고 교수 훈도의 지위도 낮아져 회피의 대상이 되면서 점차 교관의 파견이 유명무실하게 되어가자, 향교의 유지와 운영을 위해서 수령 관할하에 지방양반들로 구성되는 향교직임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직임들을 총칭하여 교임(校任)이라 한다. 조선전기의 교임에 대해서는 자료의 미비로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중앙에서 파견되는 교수나 훈도관 대신 한 고을의 스승이 될만한 지방인물을 관에서 교임으로 뽑아 향교의 강학을 담당하게 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향교의 직임으로 수임(首任)은 흔히 도유사(都有司)라는 명칭이 가장 널리 사용되었다. 이 도유사는 향교를 대표하여 모든 교임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재장(齋長)·교장(校長)·재수(齋首)라고도 불리워졌다. 도유사 다음 순위의 교임으로는 장의(掌議, 掌儀라고도 표기됨)가 있었다. 장의는 향교의 전반적인 일을 담당하였던 실질적인 관리자로서 동·서재 장의로 구별하여 표시하기도 하고,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청금

장의(靑衿掌議)·전곡장의(典穀掌議)·과자장의(科資掌議)·학교장의(學庫掌議) 등으로 구별하여 표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장의의 서열을 정해 수장의(首掌議)·부장의(副掌議) 혹은 1장의(一掌議)·2장의(二掌議)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장의는 보통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할분담과 지위의 서열이 있었던 것 같다. 교임중에서 가장 낮은 직위로는 재유사·재임·색장 등으로 표시되는 유사가 있다. 유사는 제생을 대표해서 향교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 교임이었다. 16세기 후반부터는 향교에 교수관의 파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도유사를 중심으로 한 지방사족들에 의해 자치적으로 향교가 운영되었던 것이다.

충남지역 향교에서 확인한 교임 및 인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공주향교 : 장의(2)·유사(2) <읍지>

금산향교 : 장보(1)·장의(2)

남포향교 : 도유사·장의·당장 <재임안>

노성향교 : 도유사 <기문>

당진향교 : 도유사·재장 <청금록>

대흥향교 : 도유사·장의·당장 <청금록>

덕산향교 : 도유사 <도유사록·기문>, 장의 <장의록·기문>, 당장 <비문>

면천향교 : 당장·장의 <재임안>, 재장·동일방·도유사·장의(2)·색장(2) <홍학절목>

목천향교 : 도유사·양장의·색장 <읍지>, 도유사·별유사·장의 <기문>

보령향교 : 도유사·장의·당장 <청금록>

비인향교 : 도유사 <현학선생록>

서산향교 : 도유사 <기문>

신창향교 : 도유사·장의·색장 <문묘직원명부>

아주향교 : 도유사(1)·동재장의(2)·색장(1)·서재당장(2)·유사(1) <읍지>

연기향교 : 동재도유사(1)·장의(2)·서재유사(1)·유사(2) <읍지>

연산향교 : 도유사·유사 <기문>, 장의 <재임안>

예산향교 : 도유사·장의·유사·별유사·서재장 <기문>

오천향교 : 도유사 · 장의 <청금록>

온양향교 : 장의 · 색장 · 서재 당장 <기문>

은진향교 : 도유사 · 유사 · 별유사 · 장의 <기문>

전의향교 : 도유사 <재임록>

정산향교 : 도유사 · 장의 · 색장 · 별유사 · 당장 <기문>, 장의 <선생안>

직산향교 : 도유사(1) · 장의(2) · 장생(1) · 당장(1) <읍지>

천안향교 : 도유사 · 장의 · 색장 <재임안>

청양향교 : 도유사 <재임록>, 장의 · 당장 <기문>

태안향교 : 도유사 · 장의 · 색장 · 서장의 · 전곡 <상량문>

해미향교 : 도유사 <청금록>

이들 교임의 선출방법은 각 향교별로 관례가 있어 모든 향교가 똑 같지는 않지만 대체로 도유사는 봄의 석전제가 끝난 뒤 현관 · 유생 · 유림들의 천거로 동재유생 가운데에서 3망(三望)하여 수령의 권점을 받는 형식을 취해 선출되었다. 그리고 장의 색장은 도유사의 천거로 3망한 뒤 수령의 권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비록 수령의 택임을 받고 있지만 이는 향교가 관학이었기 때문이었고 어디까지나 지방유림들의 자치성이 강조되었다. 교임의 임기는 1년이고 교체와 선출에 엄격한 절차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교임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의미도 되고 또 교임선출에 따른 대립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목적도 있었다. 고을에 따라서는 교임이 될 수 있는 성씨가 지적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으니, 『충청도읍지』 비인현 읍사례에서는 유 · 조 · 안 · 이 · 신 · 강씨(兪趙安李申姜) 중에서 3인씩 선발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외에도 비록 향교의 교임은 아니지만, 서재에 당장 · 장의 등의 서재임이 있어 교임들을 보조하고 교생들의 임무수행을 주관하였다. 그리고 교생 가운데 전곡(典穀)을 선발해 향교재정의 출납을 담당하도록 했다. 향교재정에 있어서 전곡출납의 결재자는 장의였으며, 도조의 결정 및 도록의 관리 보관자는 유사였고, 전곡출납의 실무담당자는 전곡이었던



것이다.

### 3) 교생(校生)

조선시기 각 고을의 향교에 등록된 학생을 교생(校生)이라 한다. 교생의 수는 법적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었다. 조선초기에 몇차례의 변동 거쳐 『경국대전』에는 교생의 정원으로 부·대도호부·목은 모두 90명, 도호부는 70명, 군은 50명, 현은 30명으로 거의 두배 가량 대폭 증원되어 법제화 되어 있다.<sup>16)</sup> 이 『경국대전』의 법제화된 교생의 액수는 조선말기까지 변동이 없었다.

따라서 『경국대전』 이후 충남지역 향교의 교생정원은 목(牧)에 해당하는 공주와 홍주는 90명, 군(郡)에 해당하는 임천 태안 한산 서천 면천 천안 서산 온양 금산 진산은 50명, 현(縣)에 해당하는 홍산 덕산 직산 정산 청양 은진 연산 니산 대흥 부여 석성 비인 남포 결성 보령 해미 당진 신창 예산 목천 전의 연기 아산은 30명으로 합계 1,370명이었다. 그런데 조선후기에 현에서 군으로 승격된 대흥과 덕산은 정원의 변동이 있었을 것이다.<sup>17)</sup>

향교의 교과내용은 사서(四書) 오경(五經) 등 유교경전과 역사 서적의 학습을 통한 경학, 부(賦)·고시(古詩)·명(銘)·잡(箴) 등 시문을 짓는 사장학이 주였다. 따라서 주된 교재로는 사서오경과 『소학(小學)』 『근사록(近思錄)』 『심경(心經)』 등을 들 수 있다.

향교에 입학할 수 있는 교생의 자격은 어떠했을까. 교생들의 정식 입학연령은 16세로 짐작된다. 향교의 교생은 군역이 면제되었는데, 법적으로 16세부터 군역의 부과대상이었으므로, 16세 미만인 경우 정원에 관계

---

16) 『경국대전』 예전 생도조.

17) 대흥과 덕산은 『대전회통』에 군으로 승격되어 있다. 대흥현이 군으로 승격된 시기는 1681년(숙종 7)으로 현종의 태봉이 대흥 원동면에 안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없이 향교에서 교육이 가능한 것이며 이들이 이른바 동몽(童蒙, 일명 增廣生)들이었다. 교생들의 교육연한은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것 같지는 않다. 군액의 대상이 부족할 경우는 연령의 상한선을 20세까지 제한하기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40세까지는 향교에 머무르며 학생신분을 허락 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교생의 신분은 조선왕조의 최고신분인 양반신분만이 향교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적인 논리가 있었다. 그런데 16세기 이후에는 국가의 향교 진흥책과는 달리 국역대상에서 제외된 양반의 자제들은 향교교생이 되기를 꺼렸고 양인의 자제들이 거의 향교의 정원을 메꾸게 되었다. 그리하여 양반의 자제가 향교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양반과 양민을 구분하여 거제시키게 되었으니, 이른바 동재(東齋)·서재(西齋)로 기숙사의 구별을 나타내기도 하고 액내(額內)와 액외(額外)로 양반과 평민교생들을 구분하기도 하였다.<sup>18)</sup>

유생과 교생이 향교에서 지닌 책무로는 춘추석전이나 삭망분향시에 찬알(贊謁)하고, 사직제 성황제 여제 기우제 등과 같은 각종의 사전(祀典)에 유생들은 헌관으로 교생들은 집축·집사로 동원되어 제를 지내기도 하는 등 다양한 책무가 있었다. 이러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 향교에 서는 교생들에게 유가적인 소양을 요구하였다.

### 3. 조선시대 향교의 의례기능과 사회교화

조선사회는 유교이념을 치국(治國)의 원리(原理)로 삼는 유교 중심의 사회였다. 따라서 조선왕조는 국초부터 이러한 유교이념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의 설립과 그 효과적 운영을 중시하였다. 특히 이러한 교육기관을 통한 의례(儀禮)의 답습은 유교이념을 체득케 하고 그것을 일반화 하는

18) 『효종실록』 7, 효종 2년 7월 계묘조.

데에 효과적이고 긴요한 것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의 관심은 지대하였다. 그러므로 향교(鄕校)의 각종 의례는 이러한 국가의 현실적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9)</sup>

원래 향교는 후학(後學)에 대한 교육과 선현(先賢)에 대한 제사라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고려까지만 해도 그것은 한 건물 안에서 시행되었던 것 같다.<sup>20)</sup> 향교의 각종 의례는 자연히 이러한 향교의 기본적인 기능을 실천하는 구체적 의식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조선시대의 향교의례(鄕校儀禮)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문묘제례(文廟祭禮)이고, 다른 하나는 향음주례 등의 일반의례이다. 문묘제례는 공자를 비롯한 역대 유현들의 위패를 봉안한 문묘에 대한 제사의식으로, 성현을 본받게 하고자 하는 교화(敎化)의 뜻이 담겨진 의례이다. 문묘제례에는 석진제(釋奠祭)와 삭망분향제(朔望焚香祭)를 비롯한 여러가지의 제사의식들이 포함된다. 한편 향교의 일반의례로서는 향음주례(鄕飲酒禮)를 비롯한 양노연(養老宴)이나 투호례(投壺禮)가 있었고,<sup>21)</sup> 또한 향약의 강신례(講信禮) 등이 있었다.<sup>22)</sup>

이러한 향교의례는 요컨대 향촌민에게 유교이념을 숭상하게 하고, 이로써 민속을 아름답게 교화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것은 곧 향교의례의 순기능(順機能)인 것이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이르면 향교의례의 이러한 순기능이 점차 둔화되어지고 중국에는 그 말폐가 노정되어, 각종의 역기능(逆機能)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또한 향교의례는 근현대에

19) 문묘의 공자와 4성(聖)·10철(哲)의 위판(位版) 규식(規式)은 조선 건국 초기에 『洪武禮制』에 수록된 ‘사직단 신평(社稷壇 神牌)’을 기준으로 정하여 졌다. 이는 문묘의 제 규식이 사직단 등 국가제례(國家祭禮)의 정비 작업의 하나로써 인식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金海榮, 朝鮮初期 國家 祭禮儀의 정비와 「洪武禮制」, 『淸溪史學』, 9집, 1992. P.20 참조).

20) 『稼亨集』 卷 5, 寧海府 新作 小學記. “本國學校之制 廟學同宮”.

21) 尹熙勉, 『朝鮮後期 鄕校 研究』, 一潮閣, 1990.

22) 향교에서는 향회(鄕會)가 열리기도 하였고, 향회에서는 약원(約員)들이 향약(鄕約)을 함께 읽는 강신례(講信禮)가 수반되었다(『懷德鄕約』 참조).

이르러 그 형식면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즉 기존의 향음주례가 서서히 사라지고, 문묘례에 있어서도 그 배향인물과 배향인물의 위치에 변화가 나타났으며 의례절차도 점차 더 간소화되었다.

현재 충남지역에는 36개의 향교가 존재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일읍일교(一邑一校)의 원칙으로 각 군현에 향교를 하나씩 두도록 되어 있었지만,<sup>23)</sup> 한말 이후의 군현 통폐합과정을 거치면서<sup>24)</sup> 하나의 시군에 여러 개의 향교가 있는 지역이 나타나게 되었다.<sup>25)</sup> 그러나 비록 행정적으로는 동일구역이 되었다 하더라도 각 향교의 의례형식이 온전히 통일된 것은 아니었다. 이는 각 향교의 전통과 그 향교를 출입하는 유림들의 지역정서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 1) 문묘제례(文廟祭禮)

문묘(文廟)는 성균관과 향교에 부설된 공자(孔子)를 비롯한 역대의 저명한 유현(儒賢)들의 위패(位牌)를 봉안한 곳이다. 문묘 제례는 정기 제례와 부정기 제례로 대분된다. 정기 제례로는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에 거행하는 석전제(釋奠祭)와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행하는 삭망분향제(朔望焚香祭)가 있다. 이에 대해 부정기 제례로는 향교의 건물을 수리할 때 위패(位牌)를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거행하는 이안제(移安祭)와 환안제(還安祭)가 있고,<sup>26)</sup> 문묘가 불시에 재난을 입었을 때의 위안제(慰

23) 조선초기인 성종대에는 전국의 군현에 향교가 설치되었다(『新增東國輿地勝覽』의 각 군현의 문묘조 및 학교조 참조).

24) 『朝鮮鰥輿勝覽』의 각 道郡 행정구역 개편 記事 참조.

25) 예컨대 충청남도 부여군의 경우를 보면, 이 때의 행정구역 개편 이래 현재까지 관내에는 부여향교, 석성향교, 임천향교, 홍산향교 등 4개의 향교가 병립되어 있다.

9) 충남지역 향교에서의 이안제(移安祭) 환안제(還安祭)의 사례는 예컨대 은진·부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데, 성묘(聖廟)를 개수(改修)할 때에 먼저 사유를 고하고 이안제와 환안제를 올리도록 조치하였던 것을 들 수 있

安祭)가 있으며, 그리고 위패를 새로 봉안하거나 제외시킬 때 올리는 예성제(禮成祭) 등이 있다.

문묘에서 행해지는 각종 제례의 제관(祭官)은 헌관(獻官)과 집사(執事)로 대별된다. 헌관은 공자 이하 선현들에게 잔을 올리는 일을 담당하고, 집사는 제기(祭器)와 제수(祭需)를 설치하고 헌관을 도와 제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일을 담당한다. 제관은 초헌관(初獻官), 아헌관(亞獻官), 종헌관(終獻官), 그리고 분헌관(分獻官) 등으로 구분된다. 조선시대의 향교의례에서는 대체적으로 초헌관은 그 지역의 守令이 담당하고 아헌관은 교임(校任) 가운데 수임(首任)인 도유사가, 종헌관은 동재(東齋) 유생(儒生)이나 군현내의 유력한 양반이 각각 담당하였다. 집사는 동서 교임(東西 校任)의 임무였는데, 제례의 전문적 담당을 위하여 별도로 집사교생(執事校生)을 두는 것이 조선후기 향교의 일반적인 관례였다.

문묘의 제례 때에 제관과 집사는 원칙적으로 제례 전에 미리 선정되고 임명되었다. 제일(祭日)이 가까워 지면 상재유사(上齋有司)와 액내외유사(額內外有司)가 예복을 갖추고 명륜당에 모여 여러 관장이 함께 의논하여 헌관(獻官) 및 집사를 지체와 인망이 뛰어난 사람 중에서 가려 뽑는다. 그리고 그 결과를 수령에게 보고하면, 수령은 대개 향교의 안(案)을 그대로 주인하는 정도에서 결정을 내려 그 명단을 향교에 내려보냈다. 이 때 향교에서는 이 명단에 수록된 헌관과 집사에게 차첩지(差帖紙)를 보내 통고하고 정식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취하였다. 그리고 헌관과 집사는 예비의 인원을 두어 만일에 대비하고, 유고가 있으면 속히 빈 자리를 메울 수 있게 하였다.

충남지역의 향교들에서도 문묘에 대한 석전제와 삭망분향제가 철저히 준행되어졌고, 특히 춘추 석전제는 가장 큰 제례로서 문묘제례의 상징적인 제례로 중시되어 졌다. 이는 각 향교마다 석전제규(釋奠祭規), 석전제홀기(釋奠祭 笏記), 신위 위차도(神位 位次圖), 석전제 진설도(釋奠祭 陳

---

다. (『學校謄錄』 孝宗 8年(1657) 3月 29日條, 忠淸監司 狀啓 참조.)

設圖) 등 석전제에 대한 여러가지의 기록들이 갖추어져 있고, 그 제례의식을 엄하고 중하게 규정해 놓은 데서 알 수 있다.

문묘에는 공자(孔子)를 비롯하여, 4성(四聖:안자,증자,자사,맹자)과 후대의 중국 및 우리나라의 저명한 유현들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이들 배향인물 중 5聖(五聖)에 대한 봉안(奉安)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나머지 배향인물의 봉안에 있어서는 시대에 따라 다소간의 변동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문묘가 시작된 것은 714년(성덕왕 13)에 김수충이 당나라에서 돌아오면서 공자(문선왕)와 10哲(十哲), 72제자의 화상(畫像)을 가지고 와서 왕명에 의하여 국학(國學)에 두면서 부터였다.<sup>27)</sup> 이후 변화를 거듭하여 조선말에 이르러서는 문묘의 제향인물이 모두 133인에 이르게 되었다. 즉 대성전의 정면에 공자를 주향(主享)으로 하고, 그 전면에 4성을 봉안하며, 공문(孔門) 10哲(十哲)과 宋朝 6賢(宋朝 六賢)을 대성전의 좌우 벽에 차례로 배열하였다. 그리고 대성전 앞에는 동무(東廡)와 서무(西廡)를 짓고, 동무에는 중국의 명현 47위(位)와 우리나라의 명현 9위를 종사하고, 서무에도 역시 중국 명현 47위와 우리나라의 명현 9위를 종사케 하였다. 따라서 문묘에 봉안된 위패는 총 133위가 되는 것이다.<sup>28)</sup>

문묘에 종향된 우리나라의 18현 중 삼국시대인은 2인이고, 고려시대인이 2인이며, 조선시대인은 14인이다. 문묘에 종향된 인물들은 대체적으로 학문과 도덕의 면에서 당시의 사림을 대표할 만한 사표가 되는 존재들이었다. 배향인물의 출신지역으로 보면 조선 중기까지는 영남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이후로는 기호인물들, 특히 호서지방의 인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45년의 광복 이후에는 이러한 제향인물의 구성, 특히 중국의 선현들에 대한 종향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1949년 ‘전국유림대회(全國儒林大會)’의 결의에 의해 그간 동무와 서무에 종사하던 중국 명

27) 朱南哲,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8권, 韓國精神文化研究院, P.369.

28) 위와 같음.

현의 대부분의 위판(位板)을 매안(埋安)하고, 우리나라의 명현 18위를 모두 대성전으로 올려 봉안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민족의 광복을 맞아 종래의 사대주의적인 문화의식을 불식하고 자주적인 새 정신문화를 창조하는 국민적인 염원에 바탕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후로 대개의 향교들에서는 동서무에 배향되던 우리나라의 유현(儒賢) 18현의 위패를 공자 및 4성의 위패와 함께 대성전에 올려 봉안하고, 중국 5성 이외의 여러 유현 중에서 송조의 유현 4현 또는 2현만을 여기에 첨가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현재 충남지역의 향교들에는 대체적으로 동무(東廡)와 서무(西廡)가 없이 단지 대성전(大成殿)에 25현을 봉안한 향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컨대 부여의 석성향교, 한산의 한산향교 등에는 공자와 4성, 송조의 2현(정호와 주희) 및 우리나라의 18현이 모셔져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23현, 27현, 39현을 봉안한 경우들도 있다. 23현을 봉안한 경우는 위의 25현 중에서 송조의 2현마저 제외하여 단지 5성과 우리나라 18현만을 모신 경우인데, 부여 임천향교의 사례가 그것이다. 그리고 부여향교와 홍산향교는 27현을 봉안한 경우인데, 위의 25현외에 다시 송조의 2현(주돈이, 정이)을 더한 경우이다. 대개는 대성전에서 합사하고 있지만, 드물게는 서천향교와 같이 동무(東廡)와 서무(西廡)를 그대로 두고서, 대성전에는 5성 만을 봉향하고, 동무와 서무에는 송조의 2현 및 우리나라의 18현을 봉안하기도 한다. 그리고 39위를 배향하고 있는 경우는 5성과 10哲, 宋朝 6賢과 우리나라의 18賢을 모두 봉안한 경우이다. 천안향교와 대흥향교 등에서 그 사례를 찾아 볼 수가 있다.

충남의 각 향교에서의 東西廡의 유무 및 宋朝 4賢의 배향 유무는 현재 각 지역 유림사회의 보수적 성향과 진보적 성향을 보여주는 한 가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충남지역 향교들의 문묘 운영실태를 그 봉안한 위패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2〉 충남지역 향교의 배향인물

구 분		배 향 인 물	해당 향교	소계
23위	5聖 韓國18賢	공자, 안자, 증자, 자사, 맹자 설총, 최치원, 안향, 정몽주,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인 적, 이황, 김인후, 이이, 성혼 김장생, 조현, 김집, 송시열 송준길, 박세채	임천	1
25위	5聖 宋朝 2賢 韓國18賢	(위의 5성과 같음) 정호, 주희 (위의 18현과 같음)	석성, 한산, 서천, 금산 노성 면천, 목천, 신창, 서산 당진 온양, 직산, 비인, 진산, 덕산	15
27위	5聖 宋朝 4賢 韓國18賢	(위의 5성과 같음) 주돈이, 정호, 정이, 주희 (위의 18현과 같음)	부여, 홍산, 해미, 연산 예산 전의, 청양, 연기, 정산 홍성 홍주, 은진, 아산, 남포, 보령 오천	16
39위	5聖 10哲 宋朝 6賢 韓國18賢	(위의 5성과 같음) 費公 閔損 등 10哲人 주돈이, 정호, 정이, 소옹, 장 재, 주희 (위의 18현과 같음)	대흥, 천안, 공주, 태안	4
소계			36	36

향교의례를 대표하는 것은 문묘에 대한 제례의식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춘추에 봉향되는 석전제(釋奠祭)이다. 석전은 처음에 제천행사 의식을 지칭한 것이기도 하였으나, 후대에는 주로 학교(성균관, 향교)에서 올리는 공자에 대한 추모의식을 지칭하는 말로 정착되었다. 춘추 석전제(春秋 釋奠祭)는 향교의 대제(大祭)로서 매년 2월과 8월 상정일(上丁日)에 중사(中祀)로 봉향되었다. 그 절차는 축문-재계-재관-진설의 순이었는데, 정해진 홀기(笏記)에 따라서 엄숙히 진행되었다.

향교에는 석전외에 또한 석채(釋菜)가 있었다. 석채는 희생(犧牲)을 쓰



지 않고 다만 소채 따위로 간소하게 올리는 제례이다. 석채는 처음 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이 선사(先師)를 알현할 때 행하는 예이다. 석채는 그 예가 가볍기 때문에 음악과 춤이 없고, 그에 따르는 기물도 없고, 희생이나 폐백도 사용하지 않았다.

문묘(文廟)는 곧 유학의 상징이었다. 문묘에는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를 비롯하여 역대 선현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어서 그 정신이 깃든 신성한 곳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비록 일국의 왕이라 하더라도 향교 앞을 행차할 경우에는 하마(下馬)하거나 하가(下駕)해야 했다.(大小人員 皆下馬). 지방의 감사가 군현을 순행할 때 수령이 도임(到任)하고 체임(遞任)할 때에 반드시 행하여야 할 의례가 문묘에의 알성(謁聖)이었다. 이러한 것은 문묘가 공자와 선현에 대한 제례(祭禮)의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유학의 상징이었고, 지방민들에게 유교이념을 보급하는 교화의 중심지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문묘에 대한 이러한 극단적인 존모는 자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숭배의 상징으로써 인식되었고, 따라서 문묘제례는 그 어떤 제례보다도 권위와 위엄을 지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례는 그 준비과정과 시행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유교의 질서를 체득케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향교의례의 최고의 제례는 춘추 석전제이다. 따라서 전통에 따라 석전제의 초헌관은 그 지역의 행정책임자(시장, 군수 등)가 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도유사가 대행하거나 유림중에서 원로 저명 인사로 대신케 하기도 한다. 예컨대 부여향교의 경우, 매년 춘추(春秋) 석전제(釋奠祭)에는 대개 150인 정도가 참여하고, 매월 삭망의 분향제(焚香祭)에는 향교임원과 구임원 및 관계 유림 등 약 15인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향교에 따라 다양하다. 예컨대 홍산향교는 석전에 참여 숫자가 80명 정도이고 삭망제는 전교와 장의 1명이 참여하며 장의는 매월 1인씩 교대로 참석하고, 금산향교의 경우는 삭망제에 장의 34명 전원이 참여한다. 그리고 노성향교와 같이

삭망제가 아예 거행되지 않고 있는 향교도 있다.

## 2) 鄉飲酒禮 등의 일반의례

향교는 문묘제례 이외에 향음주례, 양로연(養老宴), 투호례(投壺禮) 등 향촌교화를 위한 각종 의식이 치러지는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sup>29)</sup>

향음주례는 향촌의 유생들이 주로 향교에 모여서 학덕과 연륜이 높은 이를 주빈으로 모시고 술을 마시며 잔치를 하는 의식으로서, 어진 이를 존중하고 노인을 봉양함으로써 향촌교화를 이루려는 데 뜻을 둔 의례였다. 향음주례는 해마다 맹동(孟冬: 10월)의 길(吉)한 날을 택하여 한성부와 모든 도, 주, 부, 군, 현에서 행하였으며 주인이 유덕한 연장자 및 효행자를 택하여 학당에 주탁을 마련하고 서민까지도 자리를 달리하여 참석시켰다. 주인과 손님사이에 절도있게 술잔을 헌수하여 연장자를 존중하고 유덕자를 높이며 예법과 사양의 풍속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향음주례가 행하여 진 곳은 향교외에 또한 향사당(鄉射堂)이나 관(官)과 또는 서원(書院)에서 행해지기도 하였다.<sup>30)</sup>

그러나 향음주례나 향사례<sup>31)</sup>는 그 일이 번다하여 자주 시행할 수는 없었으므로 그 대신으로 투호례가 시행되기도 하였다. 병을 세워놓고 일정한 거리에서 병속에 화살을 던져 넣는 의례인 투호례<sup>32)</sup>는 향음주례나 향사례를 간소하게 거행하려고 할때 활용되던 방법이었던 것 같다.

양로연은 노인을 공경하는 의식을 높이고자 하여 거행되던 연회 의례

---

29) 윤희면, 앞의 책, P. 207.

30) 이정우, 『조선후기 회덕지방의 사족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31) 조선초기에 향사례는 3월과 9월에 행하여졌던 것 같다.(『성종실록』 권, 성종 21년, 윤 9월 갑신조. 참조)

32) 중국 당나라 때 성행하였는데, 『北史』 백제전과 『新唐書』 고구려전에도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의 역사도 유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다. 연회가 열리기 하루 전에 예리(禮吏)는 향교의 명륜당 뜰에 장막을 치고 땅위에 명석을 두텁게 깔아 준비를 하였다. 이때 참석자의 자리를 배정함에 있어서는 노인들의 자리는 북쪽으로 정하고 남쪽을 향하여 앉되 줄의 동편이 상석이 되도록 하였고, 수령은 서쪽을 향하여 동편에 앉도록 배치되었다.<sup>33)</sup>

이러한 일련의 향교의례들의 목적은 ‘어른을 존중하고(尊高年), 유교의 덕을 숭상케 하며(尙儒德), 예로써 사양하는 도덕을 흥하게 하는 데(興禮讓)에 그 목적이 두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장유(長幼)를 구별하고 신분의 귀천을 밝히고자 한 것으로, 양반사족들이 향촌사회에서의 신분 계급적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향음주례는 곧 독약(讀約)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향음주례는 수령이 향중의 덕망있는 자를 골라 베푸는 주연이지만, 그것은 단순히 음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민(鄉民)이 부모형제에게 효제하고 이웃과 더불어 화목할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서 유교윤리의 교육을 위한 의례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같은 향음주례의 독약(讀約)은 마치 향약의 강신례(講信禮)와도 같았으므로, 양자는 서로 혼칭되기도 하였다.<sup>34)</sup>

충남지역의 향교들에서도 향음주례가 시행되었다. 그 사례를 부여향교의 <부풍사마선생안(扶風司馬先生案)> 발문(跋文)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부여의 향음주례는 1920년대 중반까지도 계속 이어졌다.

향약의 강신례 또한 향교의례의 하나일 수 있다. 향약은 향촌의 질서와 양속(良俗)을 잘 보존하기 위한 향촌민간의 약속이다. 그리고 향약례는 이 향약의 정신을 고무하고 그 실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회 때에 향약문을 강신하고(講信), 덕업자를 천거 포상하고, 패악자를 처벌하는 등의 일련의 의식이라 할 수 있다. 가정에는 가례가 있고, 국가에는 국례가

33) 丁若鏞, 『牧民心書』 卷 7, 「禮典」 愛民 養老條.

34) 김용덕교수는 契와 鄉約과 鄉飲禮가 삼위일체의 관계라 했다.(앞의 주 37과 같음)

있듯이, 향촌에도 역시 향례가 있었으니, 이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곧 향약이었다. 『회덕향약』에 의하면 매월 1일에 모이는 제회의 장소는 향사당 또는 향교라고 되어 있다.

### 3) 鄕校儀禮의 末弊와 기능변화

원래 향교의 본원적 기능은 교육에 있었으나,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점차 제례기능이 더 중시되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향교제례의 강화는 여러 가지 폐해를 초래하였다.

향교의례의 역기능은 대체로 제수의 부담과 석전후의 식사제공의 비용 때문에 발생하였지만,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이런 문제들과 교생의 차입문제, 또한 교임(校任)의 장악 문제 등으로 유향(儒鄕) 간에 향전(鄕戰)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리고 앞에서 본 향교 위판의 도난이나 훼손 등도 이러한 역기능의 한 여파로 생겼을 가능성이 또한 적지 않다.

현재 충남지역에는 36개의 향교가 존재하고 있다. 처음에는 일읍일교(一邑一校)의 원칙으로 각 군현에 향교를 하나씩 두도록 되어 있었지만,<sup>35)</sup> 한말이후의 군현 통폐합과정을 거치면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고,<sup>36)</sup> 이에 따라서 하나의 시군에 여러개의 향교가 있는 지역이 나타나게 되었다.<sup>37)</sup> 그러나 비록 행정적으로는 동일구역이 되었다 하더라도 관내의 각 향교의 의례형식이 온전히 통일된 것은 아니었다. 즉 각 향교에 배향된 배향인물과 그 위치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배향인물은

---

35) 조선초기인 성종대에는 전국의 군현에 향교가 설치되었다(『新增東國輿地勝覽』의 각 군현의 문묘조 및 학교조 참조).

36) 『朝鮮輿地勝覽』의 각 道郡 행정구역 개편 記事 참조.

37) 예컨대 충청남도 부여군의 경우를 보면, 이 때의 행정구역 개편이래 현재까지 관내에는 부여향교, 석성향교, 임천향교, 홍산향교 등 4개의 향교가 병립되어 있다.

대개 23위, 25위, 27위, 39위 등으로 되어 있으나 25위와 27위를 배향한 향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배향위차는 전체 배향인물을 대성전에 봉안하고 북벽중앙과 그 정면 중앙에 5성을 위차하고 송조 유현과 조선 18현은 동서벽에 대개 나이순으로 배향하는 형식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각 향교의 전통과 그 향교를 출입하는 유림(儒林)들의 지역정서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향교의 의례와 기능은 대개 석전제와 삭망분향제에 국한되어 있으나, 이로써라도 향교 기능의 오랜 전통의 맥이 이어져 오고 있음은 중시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충효교실이나 예절교육 각종 문화재 행사 등을 통하여 향교의 현대적 기능을 높이고 있는 점은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각 향교의 이러한 사업이 지역전통문화의 산실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행정당국의 경제적 지원이 대폭 증대되어야 할 것이며, 향교를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향교사용의 방법 등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용의 묘를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 4. 조선시대 향교의 재정기반

조선시대 향교재정의 원칙적인 기반이 되었던 것은 토지와 노비였다. 조선초기 향교에 지급된 학전의 지급상황은 <표 3>과 같다.

<표 3> 조선초기 학전의 지급상황(단위 : 結)

구분		태종 (6년)	세종 (27년)	성종 (대전속록)	충남지역 해당향교 (경국대전)
		廩田	祭田	郷校位田	
유수관		50	6	15	10
대도호부·목		40	6	10	10
도호부	교수관(유)	15+15	4	4	10
	교수관(무)	10			
군	교수관(유)	15	4	4	7
	교수관(무)	10			
현		10	2	2	5

그러나 이러한 학전이 조선후기로 내려오면서 원액대로 유지되지 못한 향교가 대부분이었다. 그리하여 학전이 균일하지 못함이 지적되면서 1744년(영조 20)에 재조정되어 『속대전』에 명시되고 있는데, 주·부의 향교는 7결, 군현의 향교는 5결로 감소되어 책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상의 학전은 원래 국가로부터 급전받은 원답(元畓)이었고, 향교에서는 이러한 원답 외에 매입·편입·기증 등의 방법으로 조성답(造成畓)을 형성하여 향교답에 보충하고 있었다. 이 조성답은 향교소유지로 오늘날 향교에 남아있는 양안(量案)은 곧 소유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작성한 토지문서이다. 여기에는 향교소재 군현뿐 아니라 인근 군현에도 향교의 소유지가 편재되어 있음을 볼수 있다. 이렇게 향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전답은 향교마다 그 규모가 달랐음은 물론이다. 향교답의 경작방법은 흔히 교노(校奴)들이 일부를 경작하고 나머지는 여러 사람이 병작하였다.

다음으로 향교의 재산으로는 향교노비가 있었다. 흔히 교노(校奴)라고 불리우는 향교노비도 향교전의 지급처럼 군현의 격에 따라 차등지급되었

다. 향교노비의 액수는 조선초기에 몇차례의 변동을 거쳐 『경국대전』에서는 부 30명 대도호부·목 각 25명 도호부 20명 군·현 각 10명으로 규정되었다.<sup>38)</sup>

**<표 4> 조선초기 향교노비 지급액수**

구분	태종 13년	태종 17년	경국대전	충남지역 해당향교 (경국대전)
유수관	20호	30구	30명	
대도호부·목	15호	25구	25명	공주·홍주
도호부	10호	20구	20명	
군	7호	15구	10명	임천·태안·한산·서천·면천·천안 ·서산·온양·금산·진산
현	5호	10구	10명	홍산·덕산·직산·정산·청양·은진 ·연산·니산·대흥·부여·석성·비 인·남포·결성·보령·해미·당진· 신창·예산·목천·전의·연기·아산

이 향교노비도 관에서 지급조치해 준 것 이외에 매득·기증·생산 등으로 확대해 나갔다. 또한 사망·도망 등으로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서 향교의 노비수도 향교의 토지처럼 향교마다 제각기 다를 수 밖에 없었다. 향교노비는 외거하면서 신공(身貢)을 바치는 것이 보통이었다. 물론 향교내에 거주하면서 잡사를 담당하고 또 교생과 함께 수직(守直)하는 노비도 있었다. 조선후기에는 노비대신에 인근 향교촌의 양민을 차정하여 교직(校直)·전직(殿直)·고직(庫直)을 삼고, 잡역·사환·수직 등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항례화 되어 갔다.

향교의 경제기반이 되는 것으로 식리전(殖利錢)도 있었다. 수령이나 지방유림들의 노력으로 원금을 마련하고 이를 각 면리에 이식전이라는 명목으로 할당하여 존본취리(存本取利)하였다. 또한 향교를 운영하다 남은

38) 『경국대전』 「형전」 외노비조.

수입이 있으면 전답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식리전에 덧붙여 모곡을 확대하여 나갔다.

액외교생(額外校生)·교보(校保)·향교촌(鄕校村)도 향교의 재정기반이 되고 있다. 액외교생 특히 원납교생(願納校生)은 군역을 모면하기 위하여 향교에 재물을 바친 부류들이다. 원납교생의 모입은 대개 향교의 개수·중건에 소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이었다. 그외에 제복·제기·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돈이나 전답을 받고 원납교생을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교보(校保)는 조선후기에 널리 행해졌던 보의 한 예로 사모속의 일종이다. 『속대전』에 보면 향교의 보입은 40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향교에서는 대체로 이 액수대로의 양인이나 사노를 보로 삼고 보직안(保直案)·보노안(保奴案) 등을 작성하였다. 이들은 군역이나 속오군을 담당하는 대신에 향교에 돈이나 현물을 부담하였다.

향교촌(鄕校村)은 조선후기에 군현에 널리 존재하고 있었던 제역촌(除役村)의 한 예이다. 이 제역촌은 향교외에 서원·향청·이청·무청 등 갖가지 기구나 관서에서도 널리 설정하고 있었다. 이는 한 동(洞)을 획정하여 각종 잡역은 물론 군역·환곡·민고 등의 부담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주고 대신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향교나 서원 등의 기구나 관서에 하도록 한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혜택과 특전을 누리기 위해서는 동리간에서 결계(結契)하고 납전(納錢)을 해야 했다. 때문에 이 제역촌을 흑계방촌(契防村)이라고도 한다. 향교촌의 설정은 관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했고 완문(完文)을 발급받아 인정되었다.

향교촌은 두종류가 있었으니 향교가 소재하는 동(校村)과 향교에서 별도로 지정한 향교속촌(鄕校屬村)이 그것이다. 교촌의 제역특권은 이미 초기부터 있었던 것 같고, 후기에 이르면 이러한 특권을 확대하여 향교에서 관내의 부촌(富村)을 지정하여 제역촌으로 삼고 향교에 필요한 물품이나 돈을 내도록 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같이 향교촌은 향교의 권위



에 힘입어 설정된 제역촌으로 향교의 경제기반의 하나가 되었다.

이외에 향교의 재정기반이 되는 것으로는 관에서의 향례적인 제수지급, 향교에 관심이 큰 수령의 간헐적인 보조, 유림들의 각출, 향교에서 소용되는 지물을 바치는 속사, 철물·유기·옹기 등을 바치는 점촌 등이 있고, 향교에 따라서는 죽전·어진·염장 등을 지니고 있는 곳도 있었다. 따라서 향교의 재정규모는 향권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그들의 거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 5. 근대이후 향교의 변화와 쇠퇴

대원군은 서원을 정리하면서 향교를 통한 관학교육을 진흥시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각처의 향교를 보수하고, 강학을 위한 교임을 문벌과 인망 그리고 학식이 있는 자로 택정하여 사장(師長)으로 삼음으로써 향사림들을 향교로 수렴코자 하였다. 충청도내 각 향교에는 이시기 대원군이나 예조에서 내린 비문(碑文)이나 홍학의 현판이 걸려 있으며, 이후 향교의 보수·중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향교가 한때 향사림의 도회소로서 향원의 여론을 수렴하고, 향약을 비롯한 향내 중요사를 논의 집행하는 향반들의 실질적 구심체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원군의 관학부흥정책은 조선말의 어지러운 정국과 개항이후 신문물의 유입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19세기말의 중수기문에서는 흔히 향교는 점점 폐폐해지고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성현을 추모하여 재력을 내놓은 이가 온 고을을 통털어도 드문 실정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더군다나 1894년의 갑오개혁으로 예조가 폐지되고 학부아문이 창설되면서 학부는 별도의 신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게 된다. 이로써 성균관이나 향교의 교육적 기능은 사실상 상실된 셈이다. 갑오개혁에서 성균관과 향교를 관장하는 부서를 학부국

(學務局)이 아닌 사무국(事務局)으로 하였다는 것은 이 개혁이 이전의 성균관과 향교의 교학기능을 회복할 의도를 전혀 가지지 않았던 것을 보여준다. 현실적으로 대단한 세력을 차지한 성균관과 향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한국교육의 현실을 의도적으로 축소 외면한 것이다. 이제 향교교생들이 차츰 향교를 떠나게 되었다.

1908년에는 종전 향교의 교임이었던 도유사(都有司) 장의(掌議) 재임(齎任) 등을 폐지하고 직원(直員)을 임명하였다. 종래 향교의 소임은 도유사를 위시하여 장의와 재임 등이 향론에 따라 선임되고 그 천권(薦權)을 지방수령이 별 이의없이 인정하는 매우 자율적인 기관이었다. 이러한 장의 재임을 폐지하고 직원이 정부에 의하여 임명됨으로써 향교소임은 교임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할 뿐 아니라, 향교는 군수 또는 성균관(일제 시기에는 경학원)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이제 향교에서조차도 신학문을 교육하기 위한 신학교의 부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제는 병합이후 조선에 있어서 유학의 득실을 참작하여 성균관을 경학원(經學院)이라 개칭하고, 향교의 직원을 관이 임명하는 등 제도를 개혁하여 통제권만 장악한 반면, 경학연구와 풍교덕화를 비보한다는 미명하에 성균관 및 향교가 가졌던 고유한 사회적 기능이었던 문묘향사기능은 그대로 존속시켰다. 그리하여 경학원을 중심으로 식민지통치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전개하여 나갔다.

3·1운동 후에는 본격적인 유림회유정책을 펼치면서 이에 순응하는 유림들로 하여금 친일유림단체를 전국적인 규모로 결성하도록 지원하였다. 여기에서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하게 된 것이 유교유사단체(儒敎類似團體)이다. 이들은 일제의 직접적인 조직이나 후원을 받아 유림을 식민지통치에 순응하는 집단으로 조직하려 했던 단체들, 기존의 유림을 대상으로 하여 유교라는 일개 종파를 결성하려고 한 단체들, 유림을 대상으로 하여 유학서적의 간행이나 배포를 통하여 영리를 취하려고 한 집단들로 그

활동의 성격을 구분해 볼 수 있다.<sup>39)</sup>

일제시기에 향교의 교임으로 관에서 임명하는 직원을 두고 문묘를 지키며 춘추석전과 삭망분향의 의례를 집행하는 데 그 역할을 한정시키자, 자연히 향교재산도 관가의 직접 관할로 넘어갈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향교의 향사비용은 관에서 전담하게 되었지만, 사실상 그 경비는 태반이 부족하여 향교유림들이 관청에 청원하여도 매번 각하되곤 하였다. 반면에 향교의 토지는 흔히 관이 수용하여 보통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이 들어서게 되었다. 향교유림들은 전과 같이 향교를 유지하거나 향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정조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향교 유림들은 향교의 수축을 위해 향내 각 문중의 협조를 받는 일상적인 관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별도로 향교유림의 집회와 향사 등의 행사를 위한 기금을 조달하기 위한 계회를 결성하였다. 이것이 이 시기에 성행했던 존성계(尊聖契)·유계회(儒契會)의 결성이었다. 충남지역의 향교에서도 일제시기에는 향교의 중수나 보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광복 이후의 향교도 더 이상 교학기능은 회복하지 못하고, 춘추의 석전제와 삭망의 제향만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향교 교임의 명칭은 전교(典校)와 장의(掌議)로 바뀌었지만, 출입하는 인사들은 연로한 유림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앞으로는 향교의 제향기능도 중요하지만, 전통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향교의 공간을 교육과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충효교실에 국한하지 않고 향교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이루어질 때 젊은 세대들도 향교에 친근미를 느끼면서 출입할 것이고, 나아가 이는 향교의 교학기능이 새롭게 되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39) 친일파 李容九가 대표한 明倫都約所에서는 聖蹟圖를 간행하여 전국에 유포하였는데, 충남의 향교에도 흔히 이때 구입한 성적도가 보관되어 있다.

### Ⅲ. 충남지역 향교의 실태와 과제

#### 1. 공간 현황

향교의 제도는 성균관을 모방한 것이므로 문묘(文廟)가 반드시 있어야만 했다. 문묘는 공자를 위시한 선성(先聖)의 위패를 봉안한 대성전과 공자의 제자 및 현인들의 위패를 봉안한 동무(東廡)와 서무(西廡)로 되어 있다. 향교의 공간구성은 크게 2개의 공간으로 구분되며, 좀더 세분하면 3개의 공간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공자를 비롯한 선현의 위패를 봉안한 묘당(廟堂)으로 여기에는 대성전을 포함하여 동무(東廡)와 서무(西廡)가 배치된다. 이와 같은 사당이 있는 곳을 ‘묘당(廟堂)공간’이라 하고, 주택에서 국도(國都)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묘당공간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때 ‘경(敬) 공간’이라 한다.

다른 하나는 유생들이 머물며 강론과 독서를 하는 교육공간으로 이를 ‘강학공간’이라 한다. 이 공간에는 강당과 동재, 서재가 배치된다. 좀더 세분했을 때 강학공간은 강당과 동서 양재가 별도로 구분될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같은 구역내에 두거나 강당내에 방을 꾸며 양재를 대신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세분하였을 때 또하나의 공간으로 관리공간인 수직사를 들 수 있다.

향교의 건물배치를 유형별로 구분하는데는 대성전과 강당의 위치관계로서 유형화 한다. 예를들면 강학공간인 강당이 전면에 있고 묘당공간인 대성전이 후면에 배치되어 있을 경우 ‘전학후묘(前學後廟)’가 되고, 반대로 전면에 대성전이 배치되고 후면에 강당이 있을 경우에는 ‘전묘후학’식

배치가 되는 것이다.

조선시대 향교의 입지조건을 보면 대부분 구릉을 조성하여 대지를 만들기 때문에 구릉지에 세워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형조건이 반드시 배치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릉지에 위치한 향교의 많은 경우가 ‘전학후묘’식 배치이다. 이러한 ‘전학후묘’나 ‘전묘후학’식 배치는 강당과 대성전이 일직선상에 놓여지면서 좌우 대칭적으로 배치되는데 부속건물의 종류와 유무에 따라 비대칭 배치도 있다.

그러나 축선을 두지 않고 근본적으로 비대칭적인 배치형태도 있다. 예를 들면 대성전과 강당을 좌우로 평행하게 두는 경우이다. 좌측에 대성전을 배치하고 우측에 명륜당을 배치한 것은 ‘좌묘우학’이고, 좌측에 명륜당을 배치하고 우측에 대성전을 배치한 것은 ‘좌학우묘’가 된다.

## 1) 향교의 입지 및 배치형태

향교가 입지하고 있는 소재지를 보면 읍내(조선시대 읍치 기준)에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10리(4km) 이내에 소재하고 있다. 읍내에 소재하고 있는 향교로는 공주, 부여, 임천, 직산, 신창, 정산, 태안향교 등이며, 5리 이내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는 석성, 금산, 진산, 연산, 연기, 천안 예산, 대흥, 당진, 결성, 보령향교 등이다. 그리고, 읍내에서 5리이상 멀리 떨어진 향교는 홍산향교 뿐이다. 향교의 입지환경은 대부분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릉을 배경으로 전면에 평지나 낮은 경사지를 두고 있는 형상이다.

배치구조에 있어서 구릉지에 위치한 향교는 대부분 전면에 강학공간인 명륜당을 두고 후면에 묘당공간인 대성전을 배치한 ‘전학후묘(前學後廟)’식 배치를 하고 있다. 평지의 경우 간혹 전면에 대성전을 두고 후면에 명륜당을 두는 ‘전묘후학(前廟後學)’식 배치형태가 보이기도 한다. 충남지방의 경우 36개 향교 중 35개가 ‘전학후묘’식 배치이고 오천향교만 ‘좌학

우묘(左學右廟)'식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표 5> 충남지역 향교현황**

향교명	소재지	현존건물
공주	공주시 교동 184	대성전,명륜당,동무,서무,동재,제기고 존경각,내삼문,외삼문,교직사
금산	금산군 금산읍 상리 4	대성전.동무.서무,명륜당,동재,서재,내삼문,외삼문,동재각,서재각.수직사.창고
진산	금산군 진산면 교촌리 355	대성전,명륜당,전교실,내삼문,외삼문
노성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 237	대성전,명륜당,동재.서재.내삼문,외삼문
연산	논산시 연산면 관동리 437	대성전,명륜당,동재,서재,내삼문,외삼문,수직사
은진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 77	대성전,명륜당,동재.서재. 내삼문,외삼문
당진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193	대성전,명륜당,동재,서재,내삼문,제기고(?)
면천	당진군 면천면 성하리 513	대성전,동무.서무.명륜당,동재,서재,외삼문.내삼문
남포	보령시 남포면 옥서리 21	대성전,명륜당,서재.내삼문,외삼문,교직사
보령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47-1	대성전,헌관석.명륜당,동재,서재,외삼문.수재문.내삼문
오천	보령시 오천면 교성리 166	대성전.동무.헌관청.외삼문
부여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445-1	대성전,명륜당,동재,수신재,외삼문,수직사,전사청
석성	부여군 석성면 석성리 647	대성전,명륜당,동재,수복실,내삼문,외삼문
임천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213	대성전,명륜당,동무,서무.서재,내삼문,외삼문
홍산	부여군 홍산면 교원리 233	대성전,명륜당,내삼문,외삼문,수복실
서산	서산시 동문동 655	대성전,명륜당,동무,서무,동재,서재,내삼문

해미	서산시 오학리	해미읍 226	대성전,명륜당,동재,서재,내삼문
서천	서천군 군사리	서천읍 315	대성전,명륜당,동무,서무,동재,서재,내삼문,외삼문
비인	서천군 성내리4구	비인면 169	대성전,명륜당,내삼문,외삼문
한산	서천군 지현리	한산면 389	대성전,명륜당,동재,서재,교직사,내삼문,외삼문,수복실
신창	아산시 읍내리	신창면 320	대성전,명륜당,동재,서재,내삼문
아산	아산시 아산리	영인면 642	대성전,명륜당,동재,서재,외삼문,내삼문
온양	아산시 209	읍내동	대성전,명륜당,동재,내삼문,외삼문
대흥	예산군 교촌리	대흥면 538	대성전,명륜당,동무,서무,동재,서재,전교실,내삼문,외삼문,수직사
덕산	예산군 사동리	덕산면 131	대성전,명륜당,동재,서재,내삼문
예산	예산군 향천리	예산읍 132-1	대성전,명륜당,동재,서재,내삼문
연기	연기군 기리	남면 33	대성전,명륜당,전사청,내삼문,외삼문
전의	연기군 읍내리	전의면 149-1	대성전,명륜당,내삼문,외삼문,수복실
목천	천안시 교촌리	목천면 124	대성전,명륜당,동무,서무,동재,내삼문
직산	천안시 군서리	직산면 164-1	대성전,명륜당,동재,내삼문,외삼문,수직사
천안	천안시 190	유량동	대성전,명륜당,동무,서무,동재,서재,내삼문,외삼문
정산	청양군 서정리	정산면 516	대성전,명륜당,동재,서재,청아루,내삼문,수직사
청양	청양군 교월리	청양읍 34-1	대성전,명륜당,동재,서재,내삼문,외삼문,수직사
태안	태안군 동문리	태안읍 725	대성전,명륜당,동재,서재,내삼문,외삼문
결성	홍성군 읍내리	결성면 58	대성전,명륜당,동재,제기고,내삼문
홍주	홍성군 대교리	홍성읍 239	대성전,명륜당,동무,서무,동재,전사당,내삼문,외삼문

좌향구조는 대개 남향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것은 마을과 같이 있거나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않아 좌향이 마을의 배치구조를 따르기 때문이다. 좌향으로 볼 때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정남향인 자좌오향(子座午向)으로 10곳, 그 다음이 서쪽으로 약간 틀어진 남향인 계좌정향(癸座丁向)이 7곳, 서남향인 축좌미향(축座未向)이 5곳, 동남향인 임좌병향(壬座丙向)이 3곳, 서남향인 간좌곤향(艮座坤向)이 2곳 이다. 이밖에는 동향인 유좌묘향(酉座卯向), 서향인 묘좌유향(卯座酉向) 북서향인 진좌술향(辰座戌向) 등이 있다.

진입형태는 접근해 들어가면서 전개되는 여러 가지 공간적 체험을 갖게 된다. 진입은 축(軸)과 연관성을 가지며, 나아가 인간의 환경심리·구성요소·문화적 배경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향교로 진입하는 유형을 분류해 보면 크게 ①물을 건넌(渡河), ②다리를 건넌(渡橋), ③문을 지나감(通門), ④계단을 오름(昇階), ⑤좌(우)로 돌아감(迂廻), ⑥누각을 지나감(過樓) 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진입 방법은 하나의 방법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방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진입유형을 보여주게 된다. 예를 들면 문앞에 계단을 둔다든지, 문앞에 다리를 두는 경우 이다.

충남지방의 향교를 대상으로 진입유형을 보면 단지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입유형은 전면의 계단을 올라가 외삼문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승계(昇階)·통문(通門)’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며, 그 다음은 공주향교와 부여향교와 같이 평지를 지나 외삼문을 진입해 들어가는 ‘수평(水平)·통문(通門)’이 몇 개의 사례에서 보이고 있다. 신창향교나 당진향교에서와 같이 계단을 올라가 우회하여 진입하는 ‘승계(昇階)·우회(迂廻)’유형도 보인다.

충남지방 향교에서 특이한 진입형태의 하나는 계단을 올라 누각 밑을 진입해 들어가는 ‘승계(昇階)·과루(過樓)’유형이다. 이는 정산향교에서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진입방법은 불사(佛寺)건축에서는 흔히 보이고 있



지만 향교에서는 그리 잘 하지 않는 진입방법이다.

<표 6> 충남향교의 입지 및 공간구조

향교명	읍내와 거리	입지조건	좌향	진입형태	배치형식	비고
공주	읍내	구룡지	癸座丁向	水平・通門	前學後廟	
금산	1km	"	丑座未向	昇階・通門	前學後廟	
진산	2km	"	子座午向	昇階・通門	前學後廟	
노성	1km	"	子座午向	水平・通門	前學後廟	
연산	1km	"	子座午向	昇階・通門	前學後廟	
은진	1km	"	艮座坤向	昇階・通門	前學後廟	
당진	1km	"	癸座丁向	昇階・迂廻	前學後廟	
면천	읍내	"	癸座丁向	昇階・通門	前學後廟	
남포	2km	"	乙座辛向	昇階・通門	前學後廟	
보령	1km	"	辰座戌向	昇階・通門	前學後廟	
오천	4km	"	乙座辛向	昇階・通門	左學右廟	
서천	1km	"	子座午向	昇階・通門	前學後廟	
비인	1km	구룡지	寅座申向	通門	前學後廟	
한산	읍내	"	癸座丁向	昇階・通門	前學後廟	
신창	읍내	"	戌座辰向	昇階・迂廻	前學後廟	
아산	읍내	"	丁座癸向	昇階・通門	前學後廟	
온양	2km	"	丑座未向	昇階・通門	前學後廟	
연기	1km	"	癸座丁向	昇階・通門	前學後廟	
전의	읍내	"	子座午向	昇階・通門	前學後廟	
덕산	2km	"	癸座丁向	昇階・迂廻	前學後廟	
대흥	1km	"	丑座未向	昇階・通門	前學後廟	
예산	2km	"	卯座酉向	昇階・迂廻	前學後廟	
목천	2km	"	酉座卯向	昇階・通門	前學後廟	
직산	읍내	"	癸座丁向	昇階・通門	前學後廟	
천안	2km	"	子座午向	昇階・通門	前學後廟	
정산	읍내	"	壬座丙向	昇階・樓下	前學後廟	
청양	읍내	"	甲座庚向	昇階・通門	前學後廟	
태안	읍내	"	子座午向	昇階・通門	前學後廟	
결성	1km	"	壬座丙向	昇階・迂廻	前學後廟	
홍주	1km	"	丑座未向	昇階・通門	前學後廟	
부여	읍내	"	子座午向	水平・通門	前學後廟	
석성	1km	"	子座午向	昇階・通門	前學後廟	
임천	읍내	"	艮座坤向	水平・通門	前學後廟	
홍산	3km	"	子座午向	水平・通門	前學後廟	
서산	1km	"	亥座巳向	水平・迂廻	前學後廟	
해미	1.5km	"	壬座丙向	昇階・迂廻	前學後廟	

## 2) 대성전과 명륜당

대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묘당공간의 배치에 있어서 동무(東廡)와 서무(西廡)를 대성전 앞마당 좌우에 서로 마주보며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제사공간의 중심성을 강조하고, 제례의 엄격함을 유지하려는 의도이다. 대개 동무와 서무를 생략하고 그 기능을 대성전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동서 양무가 있는 향교는 공주, 임천, 금산, 천안, 목천, 대흥, 먼천, 홍주, 서천, 서산향교 등 10여곳이다.

동무만 있는 곳은 오천향교 하나뿐이다. 이 곳은 동무의 기능이 완벽하지 않고 지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의 향교에서는 묘당공간에 대성전만 두고 있다. 대성전의 평면형태는 대개 정면 5칸 또는 3칸으로 만들었다. 그 중에서 정면 5칸인 것은 임천, 연기, 직산, 신창, 해미, 정의향교 6곳이고 나머지는 모두 정면 3칸으로 만들었다. 측면은 4칸, 3칸, 2칸으로 만들었다. 측면 4칸인 것은 전의, 덕산, 태안, 당진향교 4곳이고, 측면 2칸인 것은 보령향교 1곳 뿐이다. 그밖에 모든 향교는 측면을 3칸으로 만들었다.

제사와 강학이라는 향교의 두가지 큰 기능 중에서 강학공간에는 명륜당을 중심으로 동재(東齋)와 서재(西齋)가 포함된다.








충남지방의 향교 중에서 동재와 서재가 있는 곳은 공주, 금산, 은진, 노성향교 등 모두 20곳이다. 동재 한 곳만 있는 향교는 부여, 석성, 목천, 직산, 온양, 홍주, 결성, 아산향교 등 8곳이다. 동재는 없고 서재만 있는 향교는 임천, 남포향교 2곳이다.

묘당공간의 배치구조는 단순하다. 즉, 동서 양무의 위치가 반드시 대성전 앞마당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보게 배치한다. 이에 비해 강학공간의 명륜당과 동서 양재의 배치는 여러 가지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강학공간의 배치유형은 ①명륜당 전면 좌우에 양재를 배치하는 유형, ②명륜당

후면 좌우에 양재를 배치하는 유형, ③명륜당 전면에 동재만 배치하는 유형, ④명륜당 후면에 동재만 배치하는 유형, ⑤명륜당 후면에 서재만 배치하는 유형, ⑥명륜당 전후에 부정형으로 양재를 배치하는 유형, ⑦명륜당과 평행하게 동재만 배치하는 유형으로 분류된다.

향교 중에서 동·서무, 동·서재가 모두 없고 대성전과 명륜당만 있는 향교는 홍산, 진산, 연기, 전의, 비인향교 5곳이다.

<표 7> 강학공간의 배치유형( ■:명륜당 □ : 양재)

배치형태							
향교명	금산.운진. .노성.연 산.천안. 대흥.경산 .보령.한 산	신창.예산 덕산.청양 당진.면천 서천.서산 해미.태안	온양	부여.목천 .직산.결 성	임천.남 포	공주	석성.홍 주.아산

명륜당 평면구조는 정면 5칸, 측면 2칸이 가장 많은 18개이고, 정면 3칸, 측면 3칸이 8개로 그다음이다. 5칸×3칸과 4칸×2칸이 각각 2개, 3칸×2칸이 5개, 3칸×1칸이 1개이다. 명륜당 평면구조에 있어서 크게 방을 두는 것과 방을 두지 않고 대청마루로 꾸미는 것으로 구분된다. 방을 두는 경우에는 양측에 1칸씩 2개를 두는 경우, 양쪽 중 하나만 두는 경우로 세분된다.

<표 8> 명륜당 평면구조

평면구조 칸수 (정면×측면)	방을 둔 구조		방을 두지 않은 구조
	양 쪽	한 쪽	
5×3	목천	석정	
5×2	공주.금산.직산.남포 비인.서산.태안.부여 해미.홍산	온양.천안.덕산 결성	임천.전의.신창.청양
4×2	한산	서천	
3×3	노성	정산	진산.연산.연기.예산.당진.아산
3×2			은진.대흥.면천.보령
3×1		오천	

이외에도 향교 중에는 향교 건물과는 별도로 유림회관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현재 충남의 36개 향교 중에는 금산향교, 공주향교, 연산향교, 서천향교, 보령향교, 예산향교, 서산향교, 태안향교, 당진향교, 신창향교, 온양향교, 천안향교, 목천향교 등 13개 향교에서 유림회관을 보유하고 있다.

## 2. 운영현황

### 1) 재정 및 인력현황

향교의 재산은 토지와 향교건물, 그리고 약간의 기금(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남향교재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충남도내 각 향교의 재산현황(2000년 12월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향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천안향교가 356,691㎡로 가장 많고 홍산향교가 211,350㎡이며, 금산향교(186,718㎡), 예산향교(172,856㎡), 공주향교(161,577.37㎡), 남포향교(147,196㎡), 청양향교(143,070㎡), 정산향교(127,701㎡) 등이 10만㎡가 넘는다. 반면에 면천향교 비인향교 오천향

교 결성향교 등은 2만㎡에 못 미치며, 부여향교는 겨우 7,815㎡에 불과하다. 이를 고시가격에 의한 평가액으로 환산하면, 공주향교가 5,772,171,000원에 달하며, 서산향교가 4,341,628,000원이고, 천안향교(3,842,840,000원), 당진향교(3,012,225,000원), 태안향교(2,403,840,000원), 예산향교(1,810,368,000원), 정산향교(1,264,729,000원), 청양향교(1,054,395,000원) 등이 10억원 이상의 평가액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결성향교 대흥향교 오천향교 금산향교 등은 1억원에도 못 미치는 평가액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향교에서는 토지 외에 동산으로 기금을 보유하여 관리하기도 한다. 충남의 36개 향교 가운데 진산향교, 연기향교, 공주향교, 홍주향교, 예산향교, 덕산향교, 태안향교, 당진향교, 신창향교 등 9개향교가 이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덕산향교(157,000,000원), 홍주향교(145,631,000원) 공주향교(144,493,000원) 진산향교(131,680,000원) 태안향교(111,745,000원) 등은 1억원 이상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토지의 평가액과 보유기금을 합한 각 향교별 재산현황을 살펴보면, 4000만원대에서 60억원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향교는 공주향교로 5,916,664,000원이며, 서산향교(4,341,628,000원), 천안향교(3,842,840,000원), 당진향교(3,080,225,000원), 태안향교(2,515,585,000원), 예산향교(1,848,412,000원), 정산향교(1,264,729,000원), 청양향교(1,054,395,000원) 등이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결성향교(44,920,000원), 대흥향교(53,579,000원), 오천향교(62,628,000원), 금산향교(74,265,000원) 등은 1억원에도 못 미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향교건물은 향교별로 3동에서 9동까지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공주향교 연산향교 등은 9동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나, 진산향교는 3동만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향교건물들은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표 9> 충남지역 향교별 재산현황(2000년 12월 현재)**

향교별	토지		향교건물		동산 (기금)	총계 (천원)
	(㎡)	평가액 (천원)	향교건물 (동/㎡)	평가 액		
금산향교	186,718	74,265	6동 269	미상		74,265
진산향교	24,797	255,137	3동 59.44	미상	131,680	460,405
연기향교	28,374	444,375	6동 298	미상	16,030	460,405
전의향교	31,239	699,395	4동 163	미상		699,395
공주향교	161,577.37	5,772,171	9동 743	미상	144,493	5,916,664
연산향교	27,512	624,975	9동 344.4	미상		624,975
은진향교	29,412	587,577	5동 208	미상		587,577
노성향교	43,322	101,616	5동 259	미상		101,616
부여향교	7,815.8	530,395	5동 228	미상		530,395
석성향교	34,968	115,735	6동 233	미상		115,735
홍산향교	211,350	257,027	5동 136	미상		257,027
임천향교	29,213	240,448	7동 223.6	미상		240,448
서천향교	37,014	408,525	8동 95.6	미상		408,525
비인향교	17,377	151,152	4동 191	미상		151,152
한산향교	65,146	106,442	5동 255	미상		106,442
보령향교	86,277	269,359	8동 232	미상		269,359
남포향교	147,196	479,382	5동 281	미상		479,382
오천향교	17,729	62,628	3동 178	미상		62,628
청양향교	143,070	1,054,395	7동 286	미상		1,054,395
정산향교	127,701	1,264,729	6동 388	미상		1,264,729
홍주향교	63,279	219,975	8동 263	미상	145,631	365,606
결성향교	18,359	44,920	5동 264	미상		44,920
예산향교	172,856	1,810,368	5동 236	미상	38,046	1,848,412
대흥향교	93,438	53,579	7동 203	미상		53,579
덕산향교	53,701	674,536	5동 199	미상	157,000	831,536
서산향교	89,174	4,341,628	7동 389	미상		4,341,628
해미향교	53,802	290,518	5동 485	미상		290,518
태안향교	24,265	2,403,840	6동 269	미상	111,745	2,515,585
면천향교	17,143	178,939	8동 177	미상		178,939
당진향교	43,885	3,012,225	6동 210	미상	68,000	3,080,225
아산향교	39,687	249,550	5동 213	미상		249,550
신창향교	28,769	297,465	6동 250	미상		297,465
온양향교	23,227	374,813	5동 190	미상	16,300	391,113
천안향교	356,691	3,842,840	8동 389	미상		3,842,840
직산향교	80,603	466,984	5동 219	미상		466,984
목천향교	22,625	326,217	6동 278	미상		326,217
계(36)	2,639,312.17	32,088,125	213동 9,305.04		1,374,619	33,462,744

**<표 10> 향교별 임원 및 유림 현황(2002년 3월 10일 현재)**

향교명	교직자수			유림수			비고
	남	여	계	남	여	계	
금산향교	35	3	38	1,280	60	1,380	향교 전교·장의, 유도회 지회·분회, 유림회원,부녀회원
진산향교	26	2	28	420	56	476	
연기향교	25	2	27	1253	62	1315	
전의향교	25	2	27	350	85	435	
공주향교	40	3	43	1,350	124	1,474	
노성향교	25	3	28	390	85	475	
연산향교	25	2	27	430	63	493	
은진향교	25	2	27	450	75	525	
부여향교	25	2	27	504	45	549	
석성향교	20		20	470	29	499	
홍산향교	23	1	24	460	32	492	
임천향교	25	2	27	450	35	485	
서천향교	25	1	26	470	42	512	
비인향교	20	1	21	207	35	242	
보령향교	23	2	25	380	27	407	
남포향교	23	2	25	390	26	416	
오천향교	20	1	21	420	25	445	
청양향교	22	2	24	340	20	360	
정산향교	22	2	24	350	23	373	
홍주향교	25	3	28	380	25	405	
결성향교	20	2	22	320	23	343	
예산향교	25	3	28	350	25	375	
대흥향교	23	2	25	285	23	308	
덕산향교	24	3	27	650	29	679	
서산향교	25	3	28	460	26	486	
해미향교	23	2	25	350	15	365	
태안향교	25	2	27	605	20	625	
당진향교	28	5	33	990	76	1,066	
면천향교	23	2	25	450	25	475	
아산향교	24	2	26	350	20	370	
온양향교	24	3	27	708	25	733	
천안향교	26	5	31	480	40	520	
직산향교	22	2	24	350	20	370	
목천향교	23	2	25	1,205	45	1,250	
합 계	834	76	910	18,297	1,386	19,683	

충청남도내 36개 향교에는 일반 참여자인 유림과 임원에 해당하는 교직자가 있다. 그런데 교직자는 향교의 임원만이 아니라, 향교와는 별개이면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운영되는 유도회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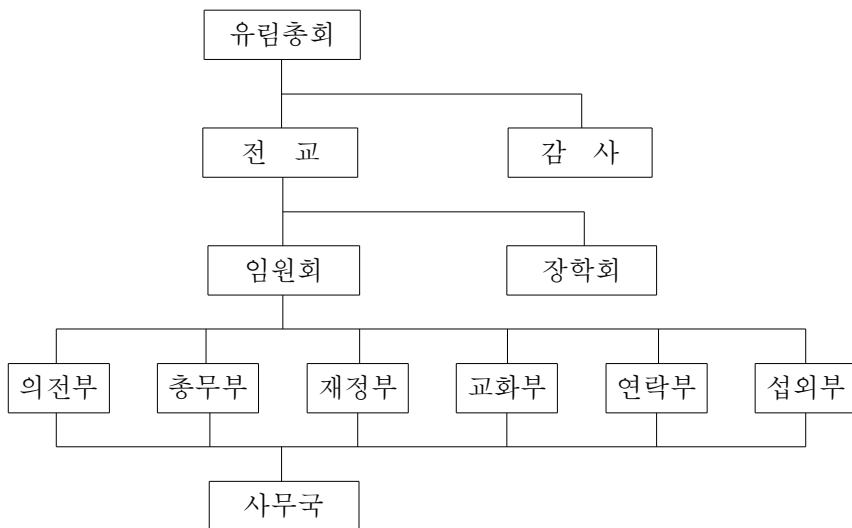
먼저 도내의 유림현황은 모두 19,683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남자가 18,297명, 여자가 1,386명으로 여성유림의 수가 여전히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향교별 현황을 보면 공주향교(1,474명), 금산향교(1,380명), 연기향교(1,315명), 목천향교(1,250명), 당진향교(1,066명) 등이 1000명이 넘으며, 비인향교는 242명에 불과하다. 이들 유림인사들은 1년에 몇 차례 유림총회를 열고 있다.

충청남도내 향교의 교직자수는 모두 910명이다. 향교별로 살펴보면, 공주향교가 43명으로 가장 많고, 금산향교(38명), 당진향교(33명), 천안향교(31명)가 30명이 넘으며, 그 외에는 20명에서 28명 사이이다. 교직자 중에는 향교별로 1~5명의 여성 교직자가 있는데, 당진향교와 천안향교는 여성 교직자가 5명에 달하여 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석성향교의 경우에는 여성교직자가 1명도 없다.

각 향교의 임원으로는 전교(1명)와 장의(20명 내지 40명), 그리고 감사(2명)가 있다. 이들 향교의 일반 조직도를 작성해 보면 <도>와 같다.

#### **<도> 충청남도 향교 일반 조직도**





2002년 3월 현재 충남 도내 각 향교 전교의 연령은 62세부터 84세까지 분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60대 12명, 70대 21명, 80대 2명으로(1명 미상) 평균연령은 71.3세가 넘는다. 이는 전교의 연령이 노령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0명 내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의는 향교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의전장의, 총무장의, 재무장의, 교화장의, 연락장의, 섭외장의 등으로 나뉘어 있다. 장의와 관련하여 특이한 것으로는 천안향교의 경우 여성 1명이 장의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도회는 성균관에 유도회 총본부가 있고, 산하에 도본부회장, 시·군지부회장, 면단위의 분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도회는 임의단체에 해당한다. 시·군지부회라고 하지만, 오늘날의 행정단위에 해당하는 시·군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향교의 유림인사 참여범위에 맞추어 그 범위가 일치하도록 지부가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향교의 운영과 유도회의 운영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대부분의 경우 유도회는 향교조직과 병합·운영되고 있으며, 유도회 시·군지부회장 책상도 대개 향교 사무실 안에 마련되어 있다.

현재 충청남도 유도회 본부는 천안향교 유림회관에 있는데, 이는 현

충남도 본부회장을 천안 유도회장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도회 본부회장이 어느 지역에서 배출되느냐에 따라서 유도회 본부 사무실은 이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도회에는 청년유도회와 여성유도회가 결성되어 있지만, 그 활동은 거의 미미한 실정이다. 유도회는 재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향교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교사업과 유도회 사업은 협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거의 공유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2) 사업실적 현황

충청남도 향교재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충청남도내 각 향교의 사업실적은 석전, 학술강연회, 강연회, 바른가정가꾸기 운동, 충효교실 운영, 한문학당 운영, 예학원개설 예절지도사 양성교육, 유림조직 강화, 향교건물 보수 및 환경정화 등의 9가지 분야가 있다. 2002년도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이 사업실적 내용을 보면, 매우 형식적이고 저조한 형편이다. 향교재단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재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상의 사업 외 향교 자체의 별개 사업은 거의 없다고 한다. 간혹 향교자체사업으로 한문교육, 서예교육, 예절순회교육 등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2003년 사업계획도 2002년과 동일하다. 단 향교건물 보수 및 환경정화 부분만 증액되어 있는데(25,650,000원에서 335,300,000원으로), 이는 2002년의 사업실적에는 향교건물의 보수비에 국비와 도, 시·군의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003년의 사업계획에는 국비와 도, 시·군의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11〉 충청남도 향교 사업실적(2002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시행기간	기타	사업비	
				2002실적	2003계획
1. 석전	석전, 춘추 2회 봉행	2월 상정 8월 상정	도내 36개 향교별 관내 유림 참여 봉행	128,277	128,277
2. 학술강연회	유학사상 고취, 인간 사회와 유학사상, 도 덕성회복, 인간의 가 치관 정립	춘추석전 일 오후	각 향교별 사계 권위인사 초청실 시	12,000	12,000
3. 강연회	도의 사회구현을 위 한 도의 선양대회	음 8월 27일 공 부자탄신 일	공자탄신 기념행 사 각 36개 향교 주 관으로 학계, 교육 계 각급 사회단체 참여 협조	5,000	5,000
4. 바른가 정가꾸기 운동	윤상질서 확립운동 화목한 가정가꾸기 교육 아버지 품위 소양교 육 어머니 주부상 가꾸 기 가정교육소양교육 실 시 모범가정 선발표창 1향교당 3가정 선발	추계 석 전일 병 행	각 향교별 각급기 관 단체 협조로 사계 권위장사 추 대교육 1일과정 관내 순 회교육 실시 모범가정 선발 표 창 엄격한 심사에 의 한 표창	15,800	15,800
5. 충효교 실운영	청소년들의 예의, 도 덕, 충효사상에 대한 소양교육 초,중,고 학생 대상 1~2주 1향교당 150 명 총 5400명 순회교육 각 향교별 순회 1일교육 실시 2,750명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용	시군 교육청, 각급 학교장의 협조 도, 시군 행정기관 협조 지원금 각 향교별 3백만 원 각급 사회단체 협 조지원 충효교육 운영위 원회 구성	136,000	136,000

6. 한문학 당 운영	향교 및 유림회관에 상설교육장 확보 초급반 : 기초한자 및 예절 중급반 : 명심보감 및 숙어 고급반 : 경전강목 고전	1월 ~12월 1년과정 2년과정	회관보유 향교별 운영 사계권위자원강사 확보 교육기관 협조	32,500	32,500
7. 예학원 개설 예절 지도사 양 성교육	혼,상,제례의식 교습 예절교육 : 개인행동 예절 (1일 교육과정) (1주 교육과정)	8월 ~10월	각 향교별 명륜당 또는 회관에 개설 향교임원 자원 강 사 분담 실시	15,600	15,600
8. 유림조 직 강화	각 향교별 청장년 참 여유도 청년유도회 조직강화 여성유도회 조직강화	1월 ~12월	각 향교별 청년, 부녀회, 읍면단위 확산 조직유도 유학인으로서 의 소양교육 실시 인 격도야	13,500	13,500
9. 향교건 물 보수 및 환경정 화	각 향교별 요 보수 건물 점검 보수철저 (16개 향교보수) 향교주위 환경정화	4월 ~7월	각 향교별 보수 재원확보 도,시군 행정기관 과 긴밀한 협조체 제 구성	25,650 (도, 시· 군비 보수 보조금 885,000 별 도)	335,300
계				384,327	693,987

충청남도 문화재계의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에 충남의 향교에 투자된 보수비가 8억 4천만원이며, 2002년에는 20억원에 달하고 있다. 사실 향교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교건물의 보수·정비에는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1982년부터 2001년까지 충청남도에서 유교유적에 사용된 문화재 사업비는 모두 33,642,449,000원으로 이는 충남의 문화재 사업비 총액(223,898,256,000원)의 15%에 해당한다. 그런데 유교문화재 사업비를 유적별로 비교해 보면, 향교 28.67%, 서원·사우 32.53% 등으로, 60% 이상이 향교와 서원의 보수에 투자되고 있다.

〈표 12〉 2001년도 충청남도 향교 보조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부여향교	담장보수	50,000	25,000	12,500	12,500
정산향교	고직사보수, 화장실 개축	100,000	50,000	25,000	25,000
대흥향교	대성전보수	90,000	45,000	22,500	22,500
목천향교	명륜당, 문간채 번와	50,000		25,000	25,000
직산향교	전사청복원	60,000		30,000	30,000
공주향교	교직사지붕보수	70,000		35,000	35,000
오천향교	외삼문, 마당정비	30,000		15,000	15,000
남포향교	대성전 번와보수	80,000		40,000	40,000
아산향교	명륜당 단청	20,000		10,000	10,000
서산향교	지붕보수	60,000		30,000	30,000
금산향교	대성전보수	30,000		15,000	15,000
전의향교	내삼문보수	30,000		15,000	15,000
임천향교	서무, 계단보수	20,000		10,000	10,000
석성향교	담장, 헛간보수, 명륜당배면기와	60,000		30,000	30,000
서천향교	사당기단정비	10,000		5,000	5,000
홍주향교	담장보수	50,000		25,000	25,000
덕산향교	서재보수	30,000		15,000	15,000
계		840,000	120,000	360,000	360,000

〈표 13〉 2002년도 충청남도 향교 보조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천안향교	동문복원,동재단청	30,000	15,000	7,500	7,500
남포향교	외삼문보수,현관청개축	100,000	50,000	25,000	25,000
온양향교	내외삼문보수,석축및계단보수	102,000	51,000	25,500	25,500
아산향교	명륜당및재실보수	70,000	35,000	17,500	17,500
서산향교	건물지붕보수	200,000	100,000	50,000	50,000
금산향교	관리사보수	50,000	25,000	12,500	12,500
진산향교	대성전기단및담장보수	148,000	74,000	37,000	37,000
석성향교	명륜당지붕보수	20,000	10,000	5,000	5,000
부여향교	대성전단청	100,000	50,000	25,000	25,000
홍산향교	담장및삼문보수	60,000	30,000	15,000	15,000
한산향교	화장실개축	60,000	30,000	15,000	15,000
서천향교	재실개축	100,000	50,000	25,000	25,000
홍주향교	담장보수	80,000	40,000	20,000	20,000
결성향교	담장및삼문설치	200,000	100,000	50,000	50,000
덕산향교	명륜당보수	200,000	100,000	50,000	50,000
당진향교	석축정비	40,000	20,000	10,000	10,000
해미향교	명륜당보수	70,000		35,000	35,000
연기향교	내삼문개축	30,000		15,000	15,000
전의향교	명륜당변와	20,000		10,000	10,000
비인향교	재실보수	50,000		25,000	25,000
예산향교	대성전보수,명륜당및서재보수	80,000		40,000	40,000
대흥향교	동재,서재,명륜당보수	80,000		40,000	40,000
태안향교	명륜당정비	50,000		25,000	25,000
직산향교	대성전주변단청,주변정비	30,000		15,000	15,000
공주향교	대문,담장정비	30,000		15,000	15,000
계		2,000,000	780,000	610,000	610,000

### 3. 운영상의 과제

○ 향교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은 매우 훌륭하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책이 전혀 모색되고 있지 못하다. 획일적인 향교의 활용이 아니라, 입지에 따라 다른 활용방식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도심지에 위치한 향교(도시형 향교), 시골에 위치한 향교(농촌형 향교)

○ 향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규모의 편차가 심하다. 도심지에 위치

한 향교는 보유재산이 많지만, 시골에 위치한 향교는 재산이 적다. 그러나 재산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향교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다. 향교에 대한 관의 지원도 향교의 재산소유실태를 감안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향교임원의 노령화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상징성을 지닌 전교는 쉽지 않겠지만, 장의는 대폭 젊은 층을 끌어들이길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에게도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여 여성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 향교에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 향교의 사업실적은 저조하고, 형식에 치우쳐 있다. 교육운영 프로그램의 운영시 눈높이를 고려한 운영이 필요하다.

○ 향교의 본래적 기능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향교운영의 다각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령화되어가는 향교에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이 친근감을 느끼면서 수시로 드나들도록 유혹(?)하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시급하다.

## Ⅳ. 타지역 향교의 수범사례 분석

### 1. 회덕향교의 시범향교 운영

#### 1) 문화관광부의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 문화관광부에서는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으로 삶의 질을 제고하고, 전통유교문화의 진흥으로 민족정체성 확립과 도덕성을 회복하고자 2002년부터 전국의 향교 및 서원을 대상으로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향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2002년에는 전주향교와 강릉향교가 대상이었으며, 2003년도에는 전국 16개 향교재단으로부터 추천받은 향교 중 5개향교(회덕, 충주, 나주, 경주, 제주향교)를 선정하여 시범향교로 운영중이다.

○ 이 사업의 2003년도 추진방침은 다음과 같다.

- 본 사업은 향교부터 우선 실시토록 하고 16개 시·도 향교재단에서 1개소씩 신청을 접수, 2003년도에 5개소 선정 추진
- 선정시 최근 3개년(2000~2002)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실적, 금년도 사업계획, 교육시설 및 기자재 보유현황, 전문인력, 소요재원 확보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확정
- 소요재원은 국고지원(1개소당 2천만원), 지방비 지원(1개소당 2천만원), 자체부담(1천만원 이상) 등 5천만원 이상 충당(지방비 지원 및 자부담 확약서 제출)



- 지방문화원, 문예회관 등 타 문화기관과의 프로그램 중복운영을 지양하고,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유교문화의 고유 프로그램 개발

- 교육대상을 연령별로 다변화하고 참여자가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풍부한 체험교육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흥미있고 유익한 교육 실시

- 교육장소는 참석자 편의 및 참여율 제고 차원에서 시내 유림회관 및 지방문화시설을 적극 활용

○ 교육문화프로그램의 운영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당해 시범향교가 주관하되, 당해 시·도 향교재단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주최(문화관광부 후원)하며, 기간은 2003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다.

○ 문화관광부에서는 교육문화프로그램과 행사프로그램을 예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문화프로그램 예시안 : ① 예절교육 강좌(생활예절, 가정예절, 사회예절, 직장 및 학교예절 / 관례, 혼례, 상례, 제례, 향음주례), ② 한문교육 강좌(천자문, 사자소학, 명심보감, 격몽요결, 효경, 서예), ③ 경서 및 동양고전 강좌(대학, 논어, 중용,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 효경, 노자, 장자, 고문진보, 성리대전), ④ 다도·시조교실 운영, ⑤ 향토사 강좌, ⑥ 지역문화 탐방 등

- 행사프로그램 예시안 : ① 전통혼례 및 수연행사, ② 온가족 제례 체험, ③ 세시음식, 세시풍속 재현, ④ 명절음식과 통과례 음식 조리 체험, ⑤ 관례(성년식) 행사, ⑥ 백일장 행사, ⑦ 선비 문화제, ⑧ 강회, 시회, 향시, 급제유가 행차, ⑨ 향교뜨락 음악회(판소리, 기악산조, 국악

관현악 등), ⑩ 은빛 청춘 민요한마당 등

## 2) 회덕향교의 시범향교 운영실태

○ 회덕향교는 2003 시범운영대상 향교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범대상 향교에 선정되었다.

○ 회덕향교의 최근 3년간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실적의 사업명은 다음과 같다.

하계 충효교실, 동계 충효교실, 동춘당문화제 승모제, 동춘당문화제 한시백일장, 동춘당문화제 전통혼례시연, 전통성년식, 전통혼례 집전, 유적지 답사, 예절학교, 청소년 전통과거, 기로연, 효자효부 표창, 현장체험학습 충효교육, 향교연감 발간, 교재발간(칠언명구, 사례편람언해), 도덕성회복 강연, 하계 유학강좌, 한문교육(기초, 소학, 논어, 맹자, 독해), 서예교습, 명륜서도회 전시회, 현암효행실천격려금 지급, 예절학교, 월드컵 성공기원 문묘고유제, 대전한의약거리제<약령제>, 금강단오제<제례> 등

○ 2003년 시범향교 교육·문화프로그램은 7부분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① 개막축하 행사(주제 : 전통문화의 향연, 2003년 5월 31일, 향교일원)

- 고유제 : 시범향교 지정 문묘고유
- 기념식 : 시범향교 지정 기념식
- 사물놀이 공연
- 전통의상 패션쇼 : 금관제복, 금관조복, 관복, 도포, 심의, 두루마기, 사규삼, 활옷, 당의 등 전통의상 패션쇼

- 국악공연 :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공연
- 다도시연 : 다도 시연 및 시음회
- 탁본체험 : 향교소장 자료 탁본체험
- 전통놀이체험 : 투호놀이, 제기차기
- 나눔의 장 : 도토리묵, 파전, 동동주 나눔

## **② 교육 프로그램**

- 한문기초(5월~12월) : 사자소학, 명심보감
- 어린이 한문(5월~12월) : 사자소학, 자격증반
- 한문경서(5월~12월) : 사서(논어)
- 서예(5월~12월) : 한문, 한글 개인지도
- 문인화(사군자)(5월~12월) : 사군자, 문인화 개인지도
- 어린이 서예(5월~12월) : 한문, 한글 개인지도

## **③ 예절 · 향토사 프로그램**

- 역사문화대학(9월~11월) : 이론, 답사
- 예절 · 다도(9월~11월) : 생활예절, 전통예절, 사례 다도 이론과 실습
- 제례특강(9월, 추석전) : 제수, 진설, 지내기

## **④ 선비체험 프로그램**

- 한시작법(8월) : 한시 작법, 감상
- 유학강좌(8월) : 유학강좌
- 선비문화체험(10월) : 경서, 복식, 배례법, 예절 전통놀이
- 어린이선비체험(10월) : 명심보감, 복식, 배례법, 예절, 전통놀이
- 온가족제례체험(연중) : 제사지내기 이론과 실습

#### ⑤ 유럽의 날 행사(9월 21일)

- 공자탄신일 작헌다례
- 한시 백일장
- 휘호대회
- 경전강독
- 향교뜨락음악회(국악, 민요, 무용 등)

#### ⑥ 충효교실

- 여름방학 충효교실 : 한자, 충효, 예절이론, 예절실습, 향토사, 다도, 답사
- 겨울방학 충효교실 : 한자, 충효, 예절이론, 예절실습, 향토사, 다도, 답사

#### ⑦ 전통혼인교실

- 성균관의 고증을 받아 재현
- 고전의상을 갖춘 집례, 집사의 예식진행
- 신혼례 및 부모님의 회혼례도 진행

#### ○ 회덕향교 운영의 시사점

- 향교연감의 발간을 통한 주인의식 제고
- 향교 운영진의 의식 제고 : 향교운영의 현대화에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음
- 향교임원의 개방 : 여성장외(5명), 40대 젊은 층의 장외 참여 유도
- 충효교실 참여 청소년이 성균관대학 지원시 전교의 추천서를 통해 가산점을 받도록 홍보(점차 다른 대학으로도 확대 필요)

#### ○ 시범향교 운영은 현재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

가를 할 수 없으나, 중간점검을 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이 주목된다.

- 개막축하행사(2003년 5월 31일)에 파격적인 행사 프로그램 도입 :  
사물놀이 공연, 전통의상 패션쇼
- 선비문화,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도모
-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운영 필요

## 2. 대구향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현재 대구향교는 국내 향교 가운데 유일하게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음 : <http://www.hyanggyo.or.kr>, 2000년부터 운영

○ 향교의 사이트 구성은 다음과 같다.

Home 향교 전교인사말 연혁 기구 재단법인 대구향교 향교 조직도 운영규정 유래 유교 유교의 기원 유교의 역사 유교의 4덕 유교의 성현 - 5성위 - 공문 10월 - 동국 18월 - 송조 6월 석전 성균관 문묘 석전의 역사 석전의 의미 - 석전의 연원 - 석전의 역할 - 석전의 구별 주요사업 교육 명륜대학원	예절교육 서도원 전통혼례 석전 대제 및 기획 절차와 제기 제복과 제관 음악과 무용 석전축문 석전홀기 전통 성년 관례,계례 의식절차 건조물 대성전 동무,서무 묘삼문 동소문 명륜당 동재서재 양사재(여성유도회) 낙육재 유림회관 외삼문 부속건물사무실 유도회 청년유도회 여성유도회 메일
---	--

○ 대구향교 홈페이지 운영의 시사점

- 인터넷 시대에 부응한 향교운영 시도
- 사이버 공간을 통해 대구향교를 널리 알림은 물론, 유교와 향교 일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가능
- 일반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올바른 유교문화, 전통문화의 확산에 기여 : 유교와 예절, 친족간의 호칭, 복식, 수연례, 혼례, 상례, 제례 등
- 그러나 아직 내용이 너무 어렵고, 한자사용이 너무 많아 일반인의 이해가 쉽지 않을 듯 함.

## V. 충남지역 향교의 현대적 활용방안

### 1. 향교 석전제의 현대화

향교 고유의 기능은 크게 강학기능과 제향기능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오늘날의 향교는 강학기능은 근대화과정에서 거의 상실되고 제향기능만이 남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춘추 석전과 같은 제향기능도 소수의 유림인사들이 관의 지원을 받아 겨우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석전제를 경건함과 엄격함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오신날’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이 축제적 요소를 적극 가미하여 젊은층이나 여성, 청소년들의 참여를 조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석전제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 1) 석전의 연원과 의의

○ 석전이란 선성, 선사에게 제사지내는 의식으로, 주초(周初)부터 있었다.

○ 사료에 의거하여 석전과 관련된 최초의 기록은 공자 몰후(歿後) 이듬해 노(魯) 애공(哀公) 17년 (서기전 478) 공자(孔子) 구택(舊宅)에 묘(廟)를 세웠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것은 국가가 공자묘를 세운 것의 시초이다.

○ 한(漢) 고조(高祖)가 12년(서기전195) 곡부(曲阜)에서 공자를 제사

하였는데 이것은 제왕이 공자를 제사한 것의 시초이다. 전한대(前漢代)까지 공자에 대한 제사는 궐리(闕里)를 떠나지 않았었다.

○ 후한(後漢) 명제(明帝) 영평(永平) 2년(59) 모든 학교에서 주공(周公)을 선성으로 공자를 선사로 석전케 하였는데 단 묘우(廟宇)를 따로 세우지 않았다. 이것이 사실상 선성 선사에게 제사한 석전의 시초이다.

○ 이후 중국에서는 시대에 따라 왕조에 따라 석전의 의식이나 내용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 우리나라의 석전은 삼국시대부터 시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통일신라시대에는 석전행사가 있었음을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고려시대에는 국왕이 친림하여 석전을 거행하기 시작하였고, 지방의 큰 고을에도 문묘를 건립하고 석전을 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최치원 설총 등 동국유현을 배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에는 공자의 위패를 모신 것이 아니고, 화상이나 소상을 모시고 석전을 거행했다.

○ 조선시대에는 전국의 모든 고을에 문묘를 설치하고 지방관이 현관으로 석전을 거행하였으며, 공자의 소상이 아닌 목주를 사용하였다. 또한 석전의 의례도 정비되어 오늘날의 석전의식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 2) 석전행사의 일반인 참여 유도

○ 오늘날의 석전제는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에 공자를 모시는 사당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제사는 공자를 비롯한 동양 5성과 송조 4현 및 동국 18현 등 총 27성현의 위패를 모시고 자치단체장이 초헌관이 되



어 봄, 가을 2회에 걸쳐 문묘제례를 올리고 있다. 봉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전폐례 - 초헌관이 폐백을 올리는 의식

초헌례 - 초헌관이 5성위 앞에서 첫잔을 올리고 대축이 축문을 읽는 의식

아헌례 - 아헌관이 5성위 앞에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의식

종헌례 - 종헌관이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의식

분헌례 - 분헌관이 중향위 앞에 잔을 올리는 의식

음복례 - 성현의 위패에 올렸던 잔을 초헌관이 대표로 음복하는 의식

철변두 - 대축이 변과 두(제기명)를 거두어 들이는 의식

망료례 - 초헌관이 폐백과 축문을 불사르고 그 재를 땅에 묻는 의식

○ 현재 전국 거의 모든 향교에서 봄과 가을 두 차례 석전례(釋奠禮)를 행하고 있으나 지역 유립들만 참여하고 있고, 문화관광부의 재정지원 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비용부담으로 제물을 간소화하거나 제향 대상 또는 회수를 줄이는 등 행사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반인의 참여는 없는 실정이다. 오늘날 엄격하고 경직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석전이 원래부터 고정불변의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져 왔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본질적인 기능을 살리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축제화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 활성화 및 축제화 방안 ;

-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 석전례 행사에 대한 사전 홍보 강화
- 대성전 앞뜰 제관석 뒤로 관람석 배치 : 청소년과 여성들의 참관권장
- 대성전 안에서의 제례행사에 대한 관람 불편을 덜기 위한 방편

으로 VCR로 녹화방영

- 석전례 행사 후 지역사 관련 주요 문헌인 향안(鄉案)을 열람하는 행사인 ‘봉심’ 재현

- 제례 행사 후의 행사장 참관 및 의례절차에 대한 해설 시간 마련

-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음복례(飮福禮) 시연

- 석전례, 제례 등 주요 유교제례법 시연

- 향교시설의 유래 및 유적·유물에 대한 특강

○ 행사시기 및 장소 ;

- 음력 2월 및 8월 초정일(初丁日)

- 명륜당, 또는 대성전과 명륜당 사이의 제례공간

○ 기대효과 ; 향교 고유의 기능 중 제향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일반인들의 향교시설에 대한 인식 제고.

## 2. 유교관련 행사의 다양화

향교공간은 도심지는 도심지대로 의미가 있으며, 시골은 시골대로 정취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향교 공간은 유지비용에 비해 활용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향교 주최의 충효교실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대부분 향교공간 보다는 유림회관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향교공간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활용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 1) 관·계례(성년식) 행사 개발

○ 현황 ; 현재 전국 향교에서 매년 5월 21일 성년의 날을 맞아 문화관광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관례, 즉 성년식을 거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민 참여도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대체로 저조한 편이다.

○ 활성화 및 축제화 방안 ;

- 성년식 대상자에 대한 사전 통보, 휴강(또는 결근) 인정 등 제도 마련 및 홍보 강화

- 5월 가정의 달과 연계하여 부자 또는 모녀 간의 대화의 장 마련

-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한 자호(字號)의 부여 행사

- 결혼 청소년에 대한 대부·대모 등 후원인 연계 행사

- 족보, 조상뿌리찾기 행사 등으로 부모 및 자녀들의 향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유도

- 식후행사로써 다과회를 통해 주법(酒法) 등 각종 예법을 익히는 기회 마련

○ 행사 시기 및 장소 ;

- 매년 5월 21일 성년의 날을 전후한 일요일

- 명륜당 및 동·서재

○ 기대효과 ; 향교시설 및 기능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세대간의 대화단절을 극복하는 문화공간의 장으로서의 새로운 향교기능을 수립함.

## 2) 전통 혼례 및 수연(壽宴) 행사 개발

○ 현황 ; 향교의 교통불편, 인식부족 등으로 혼례식장으로의 활용이 전무한 상태임.

○ 활성화 및 축제화 방안 ;

- 하객의 교통편의 등 예식장 기능을 할 수 있는 기초시설 마련
- 피로연 시설 등은 「고직사」 등 향교의 기존시설을 활용
- 집례 및 각종 혼구 등을 향교에서 제공하여 혼례비용 절감
- 가마타기 등 전통문화 체험 및 볼거리 제공
- 회갑연 등 수연 장소로도 활용

○ 행사 장소 ; 명륜당 및 대성전과 명륜당 사이의 제례공간

○ 기대효과 ; 전통 혼례방식에 따른 행사진행으로 혼례의 고유 의미를 새기고, 볼거리를 마련하며, 하객들 대접을 격조있게 하고, 혼례비용을 줄여 허례허식을 막는 등 지역경제에도 기여함.

### 3) 백일장 행사 개발

○ 현황 ; 한문 이해력을 갖춘 인구의 격감으로 시조 대회 등 과거의 백일장 행사가 소멸됨.

○ 활성화 및 축제화 방안 ;

- 지역사회의 기존 관련 행사의 유치 및 활성화
- 남녀노소, 학생 직장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백일장 행사의 장르를 한문에 국한하지 말고 폭넓게 개방
- 백일장 대회방식은 과거 조선시대 과장(科場)을 재현함으로써 참여자들의 흥미 유발
- 각종 장르의 장원에 대해서는 삼일유가(三日遊街)의 방식을 재현하여 볼거리 마련

- 회원증, 자격증 수여 등 입상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향음례(鄉飮禮) 시연

○ 행사시기 및 장소 ;

- 봄과 가을 연 2회 향교 석전례 이후 택일하여 개최
- 명륜당, 또는 대성전과 명륜당 사이의 제례공간

○ 기대효과 ; 과거 백일장의 축제분위기를 향교마당에 재현함으로써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함.

### 3. 사회교육의 내실화

○ 사회, 문화 교육 행사장으로 활용 → 전통의 현대적 계승

- 향교의 접근성과 위치를 고려 / 장소가 갖는 메리트를 최대한 살림

- 문화 교육행사장으로서의 적극 활용방안
- 학교교육과의 연계 방안 모색
- 기존 문화유적 최대 활용, 주제별 답사와 체험
- 고전 강독, 한문, 족보 특강 등등

○ 다양한 활용방안 강구 : 교육청과의 연계, 지역교재 및 참고자료 개발 교육시간의 확대, 중고교생의 체험학습 강화-소프트 개발, 지역특성 살린 자료관을 건립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체험학습 유도, 문화유적 답사 프로그램, 전통문화체험 소프트 개발

○ 특화프로그램의 운영

- 연령별·성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성격에 맞추어 실시(중점프로그램/운영방식)

- 유아·초등 : 한자·한문 교육 / 상설교육
- 중·고등 : 역사·지리·문화 교육 / 학교 수업과 연계
- 청년 남 : 성년식, 조상뿌리찾기, 지역답사 / 자율적 서클활동
- 청년 여 : 성년식, 전통예절학습, 지역답사 / 자율적 서클활동
- 장년 남 : 관혼상제례법 / 상설 프로그램화
- 장년 여 : 의례음식제작, 전통공예제작 / 상설 프로그램화

## 4. 향교자원의 관광자원화

- 지역별·주제별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相生, 特化
- 건물과 문화재 측면 외에 다양한 내용의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강
- 유형별, 주제별 체험과 탐방코스 마련

### 1) 개별관광자원으로 활용

○ 향교는 본연의 기능과 문화사적 가치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각 지역에 공통적으로 있는 보편적인 유적이므로 관광자원으로서의 경쟁력과 상품성은 약함.

⇒ 따라서 특별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경우만 관광자원으로서 경쟁력 있음.

○ 개별 관광자원화는 이런 특별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진되어야 성공 가능성이 있음.

- 건축사 및 구조 특징상 유례가 드문 경우

- 전승 의례로서 특징이나 유서가 큰 의례가 보존된 경우
- 소장 유물, 문서자료의 역사적 가치가 특별한 경우
- 역사성·대표성 있는 향교 :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는 향교

## 2) 연계관광자원으로 활용

○ 개별 유적으로서 향교는 지역별로 분산적이고, 다양하며 계열성도 희박하여 관광자원으로서 경쟁력과 메리트는 매우 적음. 따라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를 선정 집중 육성,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

○ 연계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사례(예시)

- 교육, 유교의례의 문화체험
- 건축문화재 등 유적답사와 탐방
- 인물 사상과 학문, 정신사
- 전통교육 및 강학 체험 이벤트
- 자료관, 전시관, 박물관 건립 및 관람과 연계

## Ⅵ. 정책제언

○ 현재 충청남도에는 36개의 향교가 모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공주향교는 도지정 유형문화재이고, 오천향교는 도지정 문화재자료이며, 그 외의 향교는 모두 도지정 기념물이다. 이와 같은 향교 건조물은 모두 역사성과 나름대로의 건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 항구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 현재 향교 건조물은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리가 양호하고, 노후시 지속적인 점검과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보다 확실한 원형 보존 관리를 위해서는 향교 운영주체인 유림들의 주체적인 의식과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향교 전교 이하 장의들을 상대로 한 2~3년에 1회 정도의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내용은 향교 역사, 한국 역사와 문화, 문화재 보존과 관리기술 등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육담당은 충청남도가 수행하되, 관련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향교 장의들을 상대로 한 전문화프로그램은 단지 향교 건조물에 대한 보존 관리 차원을 한 단계 넘어서, 향교 운영주체들의 질 높은 의식화와 운영능력 배양을 통해 향교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어야 한다.

○ 다음으로 향교가 담당할 수 있고 그를 통해 향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는 전통윤리 및 규범의 현대화와 교육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향교에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들은 춘추 석전제와 도의 선양 및



표창, 충효교실 운영, 학원 운영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 기존 사업들은 대부분 고답적,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세간의 주목을 끌지 못해 파급효과가 미지수이다. 모든 향교에서 춘추로 열리고 있는 석전제의 경우 의례적인 행사로 그치고 있다. 석전제에 참가하는 인원도 일부 유림에 불과하며, 연령층도 70대 전후이다.

○ 그런데 석전제는 향교 설립 이래 가장 중요한 유교의례이며, 가장 장엄하고 엄숙하며 성리학적이다. 석전제는 옛 조상들의 생활풍습과 점차 퇴색하여 가는 충효정신을 기림으로써 주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석전제 봉행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행사로 개최할 필요성이 있으며, 필요시 해당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다만, 석전제가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에 대한 제사 차원을 넘어서 성현들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 전통문화 체험의 장으로까지 승화되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많은 향교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도의 선양 및 충효 교실 역시 고답적인 충효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도의 선양은 매년 모범 학생들이나 주민들을 표창하는 사업이며, 충효교실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전통예절과 충효사상을 심어주고자 여름, 겨울방학동안 열리고 있는데, 향교 훈장, 전교 및 전직 학교장 등 유림의 원로들이 강사가 되어 청소년의 올바른 생활예절이라는 주제로 충효사상, 생활예절, 명심보감 등을 가르치고 구체적 상황에 따른 인사예절, 시범강연 등을 보임으로써 물질만능주의 사고로부터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과 충효사상 등 올바른 가치관을 지키고자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그렇지만 강의내용이 전반적으로 고루하다는 평을 받고, 신세대와의 의식 격차가 큰 만큼 전통예절과 사상을 현대화하고 보다 젊은 강사진을 확보하여 인식의 차를 좁혀가

야만 한다.

○ 다음으로 향교는 전통문화행사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 향교는 전통을 상징하는 기호이다. 그런 만큼 향교가 주체가 된 전통문화행사는 상징성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전통문화행사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현재 도내에 있는 향교들은 거의 대부분 전통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지 않은 반면, 다른 시도에 있는 일부 향교는 전통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한편 2001년도 한국문화정책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향교 일반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예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정책연구결과가 수용되어 현재 문화관광부의 시범향교가 운영되고 있다. 충남 지역의 향교는 아직 시범향교로 채택된 경우가 없는데, 문화관광부의 정책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시범향교로 지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전통문화행사를 비롯한 특성화된 향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정 뿐 아니라 인력면에서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런 한계점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한편, 관련 문화단체, 기관, 학교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특히 충남지역에 소재한 많은 지역대학과 향교사이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협정 조인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좋을 것이다.

○ 전통문화행사 외에 전통사상과 윤리 및 문화를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충효교실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대학생이나 일반인

을 상대로 한 한문교실도 열 필요성이 있으며, 그밖에 지역사료 읽기 교실, 향토사 교실, 동양고전교실 등도 향교의 특성에 맞게 개최할 가치가 있다.

○ 특히 노인개발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현재 우리 사회가 급격히 노령화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노인층을 상대로 한 노인인력개발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 단체와의 적극적인 연대 또는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 그밖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향교체험캠프도 개최할 가치가 있다. 향교체험캠프는 방학을 이용하여 2박 3일 일정으로 향교에 기숙하면서 전통예절을 익히고, 한자를 공부하는 등 전통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화된 사업들은 향교 본래의 기능인 교육적인 기능을 사회교육 차원에서 확대 발전시키는 일이다.

○ 끝으로 향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사는 최대한 향교 건축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각 향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충효교실, 한문교실 등은 향교 건축공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향교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을 때, 교육적 역사적 의미가 더 큰 만큼 향교 시설물을 활용함은 물론 그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할 것이다.

○ 그런 차원에서 각 향교 명륜당이나 동·서재를 활용하여 향교자료실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향교는 조선시대 공교육을 담당했던 기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리학적인 사상과 문화의 산실이었던 만큼 그와 관련된 자료를 비치해 두면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향교자료실에는 해당 지역의 향토사자료, 족보류,

교과서류, 유학 전적류, 문방사우 등도 갖추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향교자료실은 향교를 현대적으로 되살림으로써 주민들이 찾는 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작은 지역자료관 내지 도서관 역할을 겸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

- 강대민, 『한국의 향교연구』, 경성대학교출판부, 1992.
- 김양식, 『충북지역 향교 실태와 활성화 방안』, 충북개발연구원, 2002.
- 김용덕, 「향음례고-성종대 향악에 대하여-」, 『동방학지』 46·47·48, 1985.
- 김호일, 「조선후기 향교조사보고 : 충청남·북도 및 강원도 편」, 『중앙사론』 4, 1985.
- 논산시, 『논산지역 유교문화자료 기초조사』, 2002.
- 성균관, 『한권으로 읽는 어린이 충·효·예』, 2000.
- 송찬식, 「조선후기 교원생고」, 『국민대논문집』 11, 1977.
- 신천식, 「조선전기 향교직관변천고」, 『관동대논문집』 6, 1978.
- 윤희면, 『조선후기향교연구』, 일조각, 1990.
- 이범직, 「조선전기 유교교육과 향교의 기능」, 『역사교육』 20, 1976.
- 이범직, 「조선전기의 교생신분」, 『한국사론』 3, 1976.
- 이성무, 「조선초기의 향교」, 『이상옥박사회갑논문집』, 1970.
- 이흥재·장미진, 『우리 민족문화창달을 위한 향교와 서원기능의 현대적 활용방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 이춘희, 「조선조 향교문고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 5, 1978.
- 이태진, 『조선유교사회사론』, 지식산업사, 1989.
- 임선빈, 「고문서를 통해 본 직산향교의 운영실태」, 『고문서연구』 21, 2002.
- 충청남도, 『충남의 향교』, 1999.
- 충청남도, 『충남의 서원·사우』, 1999.
- 한동일, 「조선시대 향교의 생도에 관한 일고찰」, 『임한영박사회갑기념논총』, 1974.
- 한동일, 「조선시대 향교의 장학정책 소고」, 『벽계이인기박사고회기념

교육학논총』, 1976.

한동일, 「조선시대의 향교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성대논문집』 11,  
1971.

<http://www.yugyo.org>(사이버유교박물관).

<http://www.hyanggyo.or.kr>(대구향교 홈페이지).

■ 집 필 자 ■

임 선 빈(任先彬)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문학박사(한국사 전공)
- sbyim@cdi.re.kr

기본연구과제 2003-11

---

## 충남지역 향교의 운영실태와 현대적 활용방안

---

발 행 자 : 오 제 직(충남발전연구원장)

---

발 행 일 : 2003년 12월 31일

발 행 처 : 충남발전연구원

305-3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 138-42번지

전화 : (042)824-7814

팩스 : (042)824-7817

인 쇄 처 :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ISBN : 89-89552-40-0 03900

<비 매 품>